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3호

(제1402호 ~ 1528호)

차 례

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 색인/ 291

제 1402호(99. 7. 1) / 1

- 1면 · 서준식은 무죄다 -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,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
- 잊혀진 사람들 -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
- 2면 · <특집> 평화와 인권④ - 자결권과 미군
- 파업유도공작, 처벌만 남았다 - 민주노총, 진상 보고서 공개
- 무분별한 구속에 썰기 - 법원,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

제 1403호(99. 7. 2) / 3

- 1면 · 지문날인은 망신 -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
- 농촌을 살리자 - 전국농민회총연맹, 농가부채 탕감 촉구
- <만화사랑방>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예바다
- 2면 · 한미투자협정,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(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이창근)
-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

제 1404호(99. 7. 3) / 5

- 1면 · 재소자도 인간이다 -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
-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- 서울진보청년회, 전원유죄
- 2면 · <특집> 평화와 인권⑤ -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
- 여성노동자 뭉친다 -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
-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- 참여연대 등 성명

제 1405호(99. 7. 6) / 7

- 1면 · 방미 때마다 인권상 - 김 대통령,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
-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- 각계,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
- 2면 · <인권하루소식 캠페인>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⑦
- 온전한 특검제 요구 -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
- 예바다 서울 상경 - 명동성당 농성돌입

제 1406호(99. 7. 7) / 9

- 1면 ·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- 김 대통령,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
-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- 레드헌트 검증 예정
- “총기사용 문제 없어” - 서울지검, 총기남용 경찰에 ‘각하’ 처분

- 2면 · 7·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-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
· 주간인권호름(6월28일~7월5일)

제 1407호(99. 7. 8) / 11

- 1면 ·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- '작은 학교 살리기' 전국 메아리
·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- 해임된 대학기자들, 무기한 농성 돌입
- 2면 · 휠체어추락, 지하철공사 유감 - 장애인 대책위,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
· <현장스케치>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- "위협과 투옥을 감수하겠다"
· 농촌을 바꾸자 -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

제 1408호(99. 7. 9) / 13

- 1면 ·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-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
· 진보정당, 국보법 폐지 촉구
· <만화사랑방> 준법서약서 강요와 김 대통령 "자유메달" 수상
- 2면 ·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- 종교인·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
· 범죄자 거부 선언 - 통신연대, 지문날인 반대
· <현장스케치> 민가협, 288번째 목요집회 -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

제 1409호(99. 7. 10) / 15

- 1면 ·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- 인권단체들,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
· 이것이 정계 최소화냐 - 서울지하철노조, 대합실 노숙 투쟁 7일째
·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- 문정현 신부, 무기한 단식농성
- 2면 · "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" -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

제 1410호(99. 7. 13) / 17

- 1면 · 한총련의 아비 된 죄 -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
·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- 조폐공·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
· 김 대통령 약속 세 번, 여전한 '에바다' - 에바다농아원생, 서울상경 투쟁
- 2면 · <인권하루소식 캠페인>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⑧
· 주간인권호름(7월 6일-7월 12일)

제 1411호(99. 7. 14) / 19

- 1면 · 모국의 치우친 애정 - 재외동포법, 중국·구 소련 동포 제외
·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- 기본 생각을 바꾸라
· 인권교육의 새 도전 - 인권단체, 여름 인권캠프
- 2면 · <특별기고> 농민의 미래, 협동조합 개혁(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 소희주)
· 지문 날인 거부 이렇게 - 운동본부,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

제 1412호(99. 7. 15) / 21

- 1면 ·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-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
· 프락치 사건, 법정으로 - 천 국정원장 고소
· <인터뷰> "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" - 단식 중인 문정현 신부
- 2면 · <특집기획> 육지 위의 노예선 '양지마을' 그후 1년 - 변화, 남아있는 문제들

제 1413호(99. 7. 16) / 23

- 1면 ·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-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
·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-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
· <만화 사랑방>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
- 2면 · <특집기획> 양지마을의 형제들,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- 폭로, 처벌은 시늉 뿐

제 1414호(99. 7. 17) / 25

- 1면 · 검찰은 자중하라 -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
· 주민카드 발부 거부 확산 - 청년진보당, 전국 서명운동
- 2면 · <특집기획> 시설문제,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-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개선부터

제 1415호(99. 7. 20) / 27

- 1면 · 새 국면 맞은 에바다 -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
·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-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
- 2면 ·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- 서강대생,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
· 주간인권호름(7월12일~19일)

제 1416호(99. 7. 21) / 29

- 1면 · 사법부를 국민에게 - 시민단체, 사법개혁 뛰어들어
· 20세기 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- 앰네스티, 로마협약 비준 촉구
- 2면 ·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① - 기로에 선 인권법안'
· <새로 나온 책> 『아름다운 저항』 -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

제 1417호(99. 7. 22) / 31

- 1면 · 경찰, 노숙자 폭행의혹 -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감채워
·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- 민가협, 국보법 만화전
·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-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
- 2면 ·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② - 산 넘어 산,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
· 북한 식량위기 계속 - WFP 위기 보고서 밝혀

제 1418호(99. 7. 23)

/ 33

- 1면 · 내 아들은 억울하다 - 가혹행위, 케어 맞추기 수사 의문
- 서준식은 무죄다 -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
- <만화사랑방> 신창원과 대통령의 꿈
- 2면 ·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③ -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
-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- 위협받는 8월 투표

제 1419호(99. 7. 24)

/ 35

- 1면 · 갈 곳 없는 결핵환자 - 목포결핵병원, 조기퇴원유도
- 보안관찰 취소판결 -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
- 2면 ·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④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
-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- 일본 오사카, '교육' '노동' '생활' 등 친선교류

제 1420호(99. 7. 27)

/ 37

- 1면 ·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- 법무부, 8.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
- 언론개혁, 민주적 방송법부터 -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
- 2면 ·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- 남양주경찰서, 양해동씨 등 구속
- 주간인권호름(7월20일~26일)

제 1421호(99. 7. 28)

/ 39

- 1면 · 퇴직이나 직권면직이나 - 국세청,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
-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- 배상심위, 재소자 청원권 목살사건에 기각 결정
- 2면 · 늘어난 여성차별 -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, 성차별 호소
-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- 의보·국민연금 제정통합 촉구
- 평화행진에 곤봉 든 경찰 - 최춘마을 경찰폭력에 항의성명

제 1422호(99. 7. 29)

/ 41

- 1면 · 편견을 바로 잡아라 -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자 비하 내용 수정요구
- 식량과 희망을 동시에 - 복讎 어린이 돕기 대장정
- 조사 받아야 할 검찰 - 조폐창, 검찰 개입 은폐 비난
- 2면 · <공청회> "개혁법안 처리·공안탄압 국정조사"
- <독자투고>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(서울시립대 조관의 학생)

제 1423호(99. 7. 30)

/ 43

- 1면 ·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- 행정기관, 주민증 경신 중용
-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- 대한변협, 법률구조 강화
- <만화사랑방> 잘못된 '교과서' 생명을 앗아 갑니다

- 2면 · 평화를 위한 연대 -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
- <대학생 인권캠프 현장을 찾아서> 내것이 된 '인권과 친구하기'

제 1424호(99. 7. 31)

/ 45

- 1면 ·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- 파업조합원, 미 헌병대에 연행
-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- 근로복지공단, 유족에 폭력 행사
- 2·3면 · 99년 7월분 총목차 (1402~1424호)

제 1425호(99. 8. 1)

/ 51

- 1면 · 한총련 뱀새만 나도 안된다 - 경찰, 대학생 집회신고 불허 잇따라
- 8·15 사면에 바란다 - 정치수배자, 수배해제 촉구 단식농성
- 파도가 맞아간 인권활동가 - 성남의노의집 박홍식 씨, 다른 생명 구하고 숨저
- 2면 · 원광대 '자주대오재건위' 조작의혹 -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
- 통행증을 돌려달라 - 사무금융노조, 미8군에 항의서한
- 주간인권호름(7월27일~8월2일)

제 1426호(99. 8. 4)

/ 53

- 1면 ·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- 인권단체,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입장 표명
- <새로 나온 비디오> 또 하나의 세상 (행당동 사람들 2)
- 2면 · 계속되는 철거폭력, 최춘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
-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- 시민단체,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전달
- <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성명서> 의문사특별법안 문제 많다

제 1427호(99. 8. 5)

/ 55

- 1면 ·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- 민가협, 양심수 석방 캠페인
-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- 유가협, 국회앞 단식농성
-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- 비마 군부, 3살 난 여아 투옥
- 2면 · 날뛰는 철거폭력, 수사 제자리 -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
- <인터뷰> 동국합섬 퇴직자 정희양 씨 - "동료들의 불행이 염려된다"

제 1428호(99. 8. 6)

/ 57

- 1면 ·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- 경찰, 합법 집회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해
- 한국 땅에서 진혼굿을 - 비마 8·8 민중항쟁 추모제 열려
- <만화사랑방> 김현철 사면을 위한 양심수 사면
- 2면 ·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- 김재광(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(준) 사무국장)
- <현장스케치> '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-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

제 1429호(99. 8. 7) / 59

- 1면 · 경찰, 또 성추행 - 피해여성들,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
- 2면 ·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- 휠체어 리프트 추락 장애인,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
-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- 출소자,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
- <현장스케치> 한여름 밤의 인권축제 - 인권 우드스탁 개최

제 1430호(99. 8. 10) / 61

- 1면 ·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- 주한미군,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
- 어디있나 살상무기 - 물난리로 유실된 대인지뢰 대책 촉구
- 2면 · 8·15 사면, 똑바로 풀어라 -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사면
- 주간인권흐름(8월3일~9일)

제 1431호(99. 8. 11) / 63

- 1면 · 통신검열 이의 있다 - 통신인들 위헌소송 제기
- 반신반의 대사면 - 법무부 준법서약 고집하나
- 사면권 개정 청원 - 민변, 사면시 대법원장 의견 청취 조항 신설
- 2면 · <인권시평>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(이경주 경북대 교수)

제 1432호(99. 8. 12) / 65

- 1면 · 김현철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- 인권사회단체, '사면권 악용마라' 한 목소리
-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-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공개 항의서한 보내
- 2면 · <특별 시론>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- 국회의원들 얼굴 좀 보자 - 면담요구한 현대중기노동자 연행

호 회(99. 8. 12) / 67

- 1면 · 8·15 특사 - 양심수 56명 석방

제 1433호(99. 8. 13) / 68

- 1면 ·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-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넣기
- 8·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
- 2면 ·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? - 인권법공대위,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 방침 반대
- “모성애를 들먹였다” -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
-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- 운동본부,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
- <만화사랑방> 민생개혁법안 처리없이 끝난 국회

제 1434호(99. 8. 14) / 70

- 1면 ·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-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, 전체 22%만 석방해

- <인터뷰>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-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
- 2면 ·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-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
- <현장스케치> 고국땅의 설움이 더하다 -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

제 1435호(99. 8. 17) / 72

- 1면 · 불법연행 판친 8·15 - 경찰,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
-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- 김현철 사면 취소 촉구
- 2면 · 아동권 2차 정부보고서 토론회 -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
- 주간인권흐름(8월10일~16일)

제 1436호(99. 8. 18) / 74

- 1면 ·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- 경문대 학장,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
-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- 경찰,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
- 2면 · 국제엠네스티 8·15사면 우려 표명 -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
- 사면 끝 구속시작 -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
- 김현철 사면 비난 봇물 - 김대통령도 사면권 남용

제 1437호(99. 8. 19) / 76

- 1면 · 수배자 검거 중 입에 총 들이대 -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
-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토 -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
- 2면 · “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” - 에바다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대안 제시돼
- 거꾸로 가는 여성·아동 보호 - 규제개혁위 조치에 노동·여성단체 크게 반발

제 1438호(99. 8. 20) / 78

- 1면 ·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- 에바다 투쟁 1천일,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
- <만화사랑방> 에바다 투쟁 1천일
- 2면 · 국보법 개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사건-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체포
-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- 행정법원, 회사의 보복성 해고 제동
- <현장스케치> 사면후 처음 열린 '분노의 목요집회'

제 1439호(99. 8. 21) / 80

- 1면 ·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-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
- 동티모르, 테러 기승 -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

제 1440호(99. 8. 24) / 82

- 1면 · 큰 감옥에서의 투쟁 선언 - 8·15 출소 양심수들,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

- 국정원, 프락치 강요 부인 - "싫으면 그만, 강요는 없었다"
-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-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사상과 양심의 자유
- 주요공판안내
- 주간인권호름(8월17일~23일)

제 1441호(99. 8. 25) / 84

- 1면 ·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- 통신검열, 감시 강화 우려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부 상대 항고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보안관찰법
- 택시노동자 또 분신 -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

제 1442호(99. 8. 26) / 86

- 1면 · 국보법 폐지, 대회년의 정신 -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
- 정신지체장애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-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
-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-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국가보안법 1
- <현장스케치> '역사가 멈춘 민족' 사진전 -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

제 1443호(99. 8. 27) / 88

- 1면 ·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- 법무부, 국가인권위 '법인'안 고집
- 분신노동자 끝내 숨겨 - 노동자 박용순 씨 운명
- <만화사랑방> 정신지체자 강제 불입수술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국가보안법 2
- 형평성 잃은 재판부 - 진형구 보석석방, 노동계 반발
-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
- 진보네트워크센터,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

제 1444호(99. 8. 28) / 90

- 1면 · 광주교도소, 미결수에 폭력행사 - '소내 폭언·폭행 뿌리뽑자' 거센 요구
-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-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
- 행사와 동정
- 2면 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행형법 <끝>
- 개발시대 청산 요구 - NGO, 신 개발전략 요구

제 1445호(99. 8. 31) / 92

- 1면 ·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- 인신매매, 무임급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

- 부산구치소 충돌 사주했다 - 일반수 동원 양심수 길들이기 목적
- 2면 · 동티모르,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- 결과는 7일 발표, 이행여부에 주목해야
- 주간인권호름(8월23일~30일)

제 1446호(99. 9. 1) / 97

- 1면 ·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-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 안재우기 주장
- 핵폐기물 위협 고조 -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
- 2면 ·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- 운동본부, 헌법소원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
- <참고자료> 5대 광역시 1천여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 중지를 권고하는 서한
- 3·4면 · 99년 8월분 총목차 (1425~1445호)

제 1447호(99. 9. 2) / 101

- 1면 ·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- 개정·폐지론자 한자리, 7조 삭제 힘 실어
- <참고자료> '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' 의 원칙
- 2면 ·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- 민가협,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
- <참고자료> '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' 제안 이유

제 1448호(99. 9. 3) / 103

- 1면 ·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-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성 제기
- <만화사랑방> 나쁜 버릇 못 고친 국정원
- 2면 ·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- 창원대 법대생, 교수 고소
- 부산교도소 폭력사태 규탄 - 사회단체, "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"
- 8시간 일하고 싶다 - 전국여성노동조합, 여성노동자 4백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

제 1449호(99. 9. 4) / 105

- 1면 · 대법원, 영남위사건 일부 파기환송 - 피의자가 인정않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
- 2면 ·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- 한학협, 협박·회유한 경찰 고발
-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-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

제 1450호(99. 9. 7) / 107

- 1면 ·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- 공청회, "요양관리 허술 ... 자살 사고 초래"
- 에바다 사태 새 국면 - 개혁 이사건에 힘 실릴 듯
- 민교협, "서준식 무죄선고" 촉구
- 2면 · '증거재판주의'를 위한 기도회 - 치과 의사 모녀 살해사건 관련
- 주간인권호름(8월31일~9월6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우리 할머니 산전택 (공선옥 소설가)
- <사고> 채찍과 격려, 하루소식의 자양분 -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

제 1451호(99. 9. 8) / 110

- 1면 · 서준식 씨 국보법 무죄 판결 - 보안관찰법·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
- <인터뷰> 김인국 신부 - 신부들, 단식 삭발로 국보법 폐지 의지 천명
- 2면 ·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- 기획예산처,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
- <새로나온 신문>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『활보』(국보법 국제캠페인팀)

제 1452호(99. 9. 9) / 112

- 1면 · 범죄수사의 성역 '주한미군' -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
- "반대! 국보법" 압력 고조 -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
-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- 복직요구 농성도중
- 2면 · "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!" - 시민단체,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
- 활동은 하는 겁니까? -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에 정보공개 요구
-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- '9999운동' 버마 국내외서 전개

제 1453호(99. 9. 10) / 114

- 1면 · 기독교계, 국보법 폐지 촉구 -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
- <현장스케치>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- "뒤가 문젭니까?"
- 2면 ·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-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
-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- 철도청 노동자, 부당징계무효 소송제기
- <만화사랑방> 국보법 폐지 운동 각계 확산

제 1454호(99. 9. 11) / 116

- 1면 ·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- SOFA 개정 국민행동,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
- 낮엔 복직투쟁, 밤엔 여의도 노숙 -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, 분노의 1천일
- 2면 ·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- 유엔인권고등판무관, 특별회의 개최 촉구
-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- 현지 방문단, 정부 개입 촉구

제 1455호(99. 9. 14) / 118

- 1면 ·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- 국립목포결핵병원 '치료보다 실적위주' 물의
- 안기부 망령이 되돌아 온다 - 국정원, 전국연합 전격 수색
- 2면 · <인권시평>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(이제훈 한겨레 기자)
- 주간인권흐름(9월7일~13일)

제 1456호(99. 9. 15) / 120

- 1면 ·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재제를 - 국내인권단체,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
-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- 천주교 사제단식에 신자들 동참
- 2면 · '생산적 복지'도 말뿐이었나 - 사회단체, "사회복지예산 사실상 제자리"

·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-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

제 1457호(99. 9. 16) / 122

- 1면 · "7조만 부분 개정" 검토중 - 유선호 인권위원장,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
-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-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
- 2면 · "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" - 정신지체인 가족, 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
-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- 노재중 또 고소 당해
-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- 하영옥 씨 "박카스 먹고 이상증세" 주장

제 1458호(99. 9. 17) / 124

- 1면 · "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" - 민화협, 국보법 토론회 개최
- 국내 34개 시민단체, 동티모르 즉각파병 촉구
- 2면 · <특별기고>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(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)
- <만화사랑방> 불법도청, 사생활 정보 유출

제 1459호(99. 9. 18) / 126

- 1면 · 계속되는 학살 -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
- 호주, 국보법 반대 집회 -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인론 냉담
- 2면 · 생존보다 월드컵이 우선 -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상암동 주민들
- "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" -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
- 국보법 입장이 됩니까? - 전북지역 사회단체들,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

제 1460호(99. 9. 21) / 128

- 1면 · 1백15개 단체 "국보법 반대" 결집 -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
- <새로나온 책> 『국제인권법』(박찬운 변호사)
- 2면 · <인권시평>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 이야기 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
- 주간인권흐름(9월 14일~9월 20일)

제 1461호(99. 9. 22) / 130

- 1면 · "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" - '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' 발족
-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-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
- 2면 · <독자기고>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(김건환 건국대 교수)
- 인권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-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

제 1462호(99. 9. 28) / 132

- 1면 · 4개 교단 "국보법 폐지" 목청 -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
-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- 일터·보급자리 모두 잃을 듯

- 주요공판안내
- 2면 · <인권시평>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-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- 출입국관리소,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

제 1463호(99. 9. 29) / 134

- 1면 ·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- 인권연대, 10월 한달 간 집중 캠페인
-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 결성 -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
- 2면 ·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읽기 -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발
- 경찰 폭력시위 유도 의혹 - 평화 시위대에 돌 던진 후 발뺌
- 민주방송법 운동본부 발족 - 전국적 서명운동과 홍보 박차

제 1464호(99. 9. 30) / 136

- 1면 · 국보법 존폐 문제 격론 - 국민회의, 국보법 토론회 개최
-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-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러 사망
- 2·3면 · 99년 9월분 총목차 (1446-1464호)

제 1465호(99. 10. 1) / 141

- 1면 · 전운 감도는 한라중공업 조선소 - 경찰병력 배치, 헬기서 유인물도 뿌려
- 4·3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- 제주고법, 원심개고 무죄선고
- <국보법 속보>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홈페이지 개설
- 2면 · 유엔,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- 국제인권단체 “인도네시아 입김” 우려
- 공무원·용역 등쌀에 수난 - 서초구청의 노숙 노인들
- <만화사랑방> 시위대에 돌 던진 경찰

제 1466호(99. 10. 2) / 143

- 1면 · 현직검사 피소 -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
- “한전 민영화 웬말?” - 사회단체, 부작용 경고
- 또 국보법 7조냐 -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
- 2면 · <인터뷰>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- “편견도 경찰폭력이다”
- <국제인권소식> 인도네시아,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

제 1467호(99. 10. 5) / 145

- 1면 · “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” - 단속나선 검찰,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
- <국보법 속보> 미주·호주 인권단체 지지서한 발송
- 2면 · <인권시평>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(강내희 중앙대 교수)
- 주간인권호름(9월21일~10월3일)

제 1468호(99. 10. 6) / 147

- 1면 ·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요연 -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, 국정원 연행 소문
- 안사청도 이적단체 -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
- <새로나온 책> 『인권수첩』 (한상범 동국대 교수)
- 2면 · 노근리는 병산의 일각 - 제주·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
- 계속되는 통신검열 -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
- “박정희는 절대 안된다” - 70년대 노동운동가,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 반대

제 1469호(99. 10. 7) / 149

- 1면 · 김형찬 씨 행방불명 3일째 -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 4일 구금
- 준법서약 폐지주장, 보복성 재수감 - 농사짓던 8·15출소자 가석방 취소
- 이해정 씨도 승소 -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
- 2면 ·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- 철거현장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
- ‘SOFA개정 국민행동’ 결성 - 인권침해·미군범죄 근절 촉구
- <국보법 속보> 부산 사회단체 단식농성 돌입, 재미동포단체 동참

제 1470호(99. 10. 8) / 151

- 1면 ·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- 노점상·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
- 김삼석 씨 보안관찰처분취소
- <만화사랑방> 국정원의 김형찬 씨 불법구금 의혹
- 2면 ·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-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
- “지하철은 안전 사각지대” - 휠체어리프트 대책촉구 시위
-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- 이적표현물 소지·배포 혐의
- <논평> 보안관찰

제 1471호(99. 10. 9) / 153

- 1면 · 복직 뛰 왕따·부당전출 - 한화오트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
- <국보법 속보> 국보법 피해자 선언, 부산시경 국보법 철폐 문화제 방해공작
- 2면 · 공교육은 죽고, 사교육은 확대 - 한국교육연구소, 공교육 현실 진단
-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-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

제 1472호(99. 10. 12) / 155

- 1면 ·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- 대통령 경호 핑계, 피켓시위대 몰아내
- 경찰청 “부당한 인권교육 실시” 약속 - 인권연대 토론회, 경찰폭력 백대 폭로
- 2면 · <인권시평> 작은 것들 죽이기(공선옥 소설가)
- 주간인권호름(10월4일~10일)

제 1473호(99. 10. 13)

/ 157

- 1면 ·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- 상지대 교직원, 13년만의 양심고백
-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-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
- 2면 · '막가파'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- 만인산업대표,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
-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- 법무부, "법제정 후 여론 수렴"
- "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" - 아시드,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난

호외(99. 10. 13)

/ 159

- 1면 ·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프 아기통 입국금지

제 1474호(99. 10. 14)

/ 160

- 1면 ·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-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
- 인권고등판무관, 독립적 인권기구지지 - "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"
- 일본 인권단체, "국보법 철폐" 서명운동 개시
- 2면 · 탈북자 김길선 씨, "탈북자 난민인정은 북한인권 해결 열쇠"
- <현장스케치>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
- 노숙철거민 강제 수용 시비-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

제 1475호(99. 10. 15)

/ 162

- 1면 · 노동자 폭행, 감독기관 수수방관 - 관리직 간부에 맞아 하반신 마비
-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- 프 대사관, 행자부에 질의
- <만화사랑방> NGO대회에서 쫓겨난 NGO 활동가
- 2면 · <판결문>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 - 조선대 녹두대 이적단체 사건
- <국보법 속보> 민노당 'NO! 국보법' 스티커 부착, 연대회의 시국대회 개최

제 1476호(99. 10. 16)

/ 164

- 1면 ·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- 고려화학 연기흙 씨, 2년새 2차례 부당해고
-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-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
- <국보법 속보> 충북 종교인 공동캠페인 시작
- 2면 ·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
- 김형찬씨, 지난 10일 돌아와 - 심경정리 위한 잠적
-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6백명
- 오프노노동자 또 폭행당해 - 사측 농성장 덮쳐

제 1477호(99. 10. 19)

/ 166

- 1면 · 왜 우리를 감시·통제하는가 -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
- 복직을 향한 고난의 행진 - 전해투 전국순회투쟁

- <국보법 속보>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
- 2면 · <인권시평>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(이재훈 한겨레 기자)
- 주간인권호름(10월11일-17일)

제 1478호(99. 10. 20)

/ 168

- 1면 ·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- 사회단체 회원,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
- <새로나온 자료집> 「제2의 국가보안법, 보안관찰관련 자료집(1)」
- 2면 · 서초구청, 대통령 행차 이유로 노숙철거민 쫓아 내
- 성직자, 한전 민영화 반대 - 공공성 포기 철회 요구
- 검찰증거 비과학적 - 치과 의사 모녀살해사건, 새 주장

제 1479호(99. 10. 21)

/ 170

- 1면 ·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- 민주노총,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
- 한전민영화 반대 - 성직자에 이어 교수도 동참
-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- 민주노총, "납득할 수 없는 일"
- <국보법 속보> 광주전남, 천막농성 돌입
- 2면 · "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",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
-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- 장시간 노동요구에 연령제한도
- "감청현황을 밝혀라" - 청주 정평위, 자료공개 요청

제 1480호(99. 10. 22)

/ 172

- 1면 ·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-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"모두 유죄"
- 검찰, 국감에 거짓 답변 - 피해자에게는 사과
- 2면 · 개인정보유출, 본인만 모른다 - 통신티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행동
- 임대아파트법 개정 논쟁,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
- <만화사랑방> 보안관찰, 이젠 그만해라

제 1481호(99. 10. 23)

/ 174

- 1면 ·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- 집시법 시행령, 확성기 사용·유인물 배포도 제한
- <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>
- 2면 · 에바다폭력사태, 재단축이 사주 - 원장 직무대행, 농아학생 입막음 시도
- "원직복직, 꿈도 꾸지 마라" - 41일 단식에 회사측 꿈적 안해
- "공교육 포기" 반발 - 교육청, 수업료 인상 방침

제 1482호(99. 10. 26)

/ 176

- 1면 ·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- 시민단체,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
- "핵심 비켜간 기만책" - 시민사회계,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대

- <국보법 속보> 청년진보당, 단식농성 돌입
- 2면 · 유엔인권이사회, “국보법 문제” 지적 -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
- <주간인권호름> (10월18일~24일)

제 1483호(99. 10. 27) / 178

- 1면 ·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-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
- 페렴·심장병에 명든 철거촌 어린이 - 궁안마을 철거민, 명동성당서 모금운동
-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
- 2면 ·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- 저임금·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
- <인권시평> ‘아줌마 부대’가 만드는 ‘조용한 혁명’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

제 1484호(99. 10. 28) / 180

- 1면 ·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- 유엔인권이사회 “호평”, 사실과 달라
- <새로나온 비디오>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,2 (제작 올림피아프로덕션)
- 2면 · 에바다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- 교사들 학교출입 못한지 4일
- 검찰, 이유도 고지 않고 민주노총 관계자 참고인 수사
- 호세 라모스 호르타, “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”

제 1485호(99. 10. 29) / 182

- 1면 · 교수들,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-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
- <기자의 눈>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?
- <국보법 투쟁 속보> 인천지역 동참, 기독교계 정치권에 항의서한 발송
- 2면 · 20세기 돌아보며 새천년 인권 - 제4회 인권영화제 11월 26일 개막
- 인천 한양공영, 해고자 복직 약속 불이행
- <만화사랑방>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속인 법무부

제 1486호(99. 10. 30) / 184

- 1면 ·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-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 원칙에 맞게
- 민가협, ‘이근안 엄벌’ 촉구
- 2·3면 · 99년 10월 총목차(1465~1486호)

제 1487호(99. 11. 2) / 189

- 1면 · 외국인노동자 “단결만이 살길”, 열악한 인권개선 위한 노조설립운동 제기
- <국보법 반대투쟁 속보> 교수 1천명, 국보법 폐지 서명
- 2면 · <인권시평> 국보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가지 단상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- 주간인권호름(10월25일~31일)

제 1488호(99. 11. 3) / 191

- 1면 · “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” - 세계화 명분, 인권·노동·환경 침해
- 청주시,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키로
- 2면 · 국회 앞 집회·쇠사슬 농성 - “국보법 철폐” 23만명 국회청원
- <현장스케치>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- “이대론 물러설 수 없다”

제 1489호(99. 11. 4) / 193

- 1면 · 국보법 개정반대 한나라당 규탄 - 김용갑 의원 등 63명 ‘인권의 적’ 규정
- 국보법 철폐 3백명 농성 돌입, 전국에서 12일까지
- 2면 · “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” - 여성민우회 등,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
- “SOFA 특혜조항 삭제, 전면 개정” - 국민행동, 공청회 열어
- 민변,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

제 1490호(99. 11. 5) / 195

- 1면 · 30년만의 조출한 추모제 -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고 권재혁 씨
- ‘고문특별법’ 제정 촉구 - 민가협 “배후 철저히 색출” 주장
- 2면 ·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-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
- <국보법 반대투쟁 속보>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... 국보법 63적에 질의서 보내
- <만화사랑방> 국보법 존속주장 한나라당 63적

제 1491호(99. 11. 6) / 197

- 1면 · 유엔,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... “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”
- 색깔론, 이대론 안된다 - 민교협,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
- 2면 · 유엔인권이사회, 한국 정부대표 비판 - 양심수 자료 등 제외돼
-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-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미흡

제 1492호(99. 11. 9) / 199

- 1면 · 정부, 파업노동자 ‘폭력배’ 매도 - 유엔인권이사회 허위보고 드러나
- 노동부, 장애인 고용 외면 - 장애인고용 0% 부처에 면죄부
- <국보법 반대투쟁 속보> 전북 종교인들 단식 29일째
- 2면 · <인권시평> 사실은 사실대로 (강내회 중앙대 교수)
- 주간인권호름(10월31일~11월7일)

제 1493호(99. 11. 10) / 201

- 1면 ·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-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율 30% 이하
-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- 법원, “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”
- 2면 · “비리시설장 영구퇴출” - 10개 사회단체,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

- 민중대회, 오는 14일 여의도서 ... 각계민중 4만명 결집 예상
- <민중대회 10대 요구안>

제 1494호(99. 11. 11) / 203

- 1면 · 학습지 교사, “우리도 노동자” - 학습지업계 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
-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- UNDP·참여연대, 빈곤실태 점검
- 2면 · <해설>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① 노·농·빈, 생존권 요구

제 1495호(99. 11. 12) / 205

- 1면 ·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생활 -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
- <인터뷰 자료>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
-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“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”
- 2면 · <해설>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② “공기업 민영화·투자협정 중단”
- <만화사랑방> 정형근
- 3면 · <요약>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- “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”

제 1496호(99. 11. 13) / 208

- 1면 · 해외진보인사 또 입국금지, 미국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
-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, 담당 경찰관 증인으로 신청
- “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”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
- 2면 · <해설>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③ “건강권·교육권 보장”

제 1497호(99. 11. 16) / 210

- 1면 · 민가협,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-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
-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-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, 시가행진 중 강제연행
- 2면 · <인권시평>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(공선옥 소설가)
- 주간인권호름(11월8일~14일)

제 1498호(99. 11. 17) / 212

- 1면 · “스티브 젤저 직접 와라” - 법무부,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
-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- 연대회의·국민연대, 국보법 공동토론회
- “배후 색출해 처벌하라” 유가협 등 경찰청 항의시위
- 2면 · <기고> 또 하나의 전쟁터 - 버마·태국 난민캠프(배경내, 인권운동사랑방)

제 1499호(99. 11. 18) / 214

- 1면 · ‘일할 권리’ 요구 단식돌입 - 장애인들, 여의도에서 천막농성
- 강패동원, 노조원 폭행 - 고려운수, 안전월급제 갈등

- 2면 · “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...” 생사기로부터 내몰리는 결핵환자들
-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> ① ‘모든 권력을 민중에게’ ‘에스코바의 자살골’
- 3면 · 제4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

제 1500호(99. 11. 19) / 217

- 1면 · 철거용역 다윈 다시 활개, 서울 봉천동·상암동 강제철거 시도
- “외국인 블랙리스트 웬말” 젤저 씨 동료들, 항의시위 계획
- <만화사랑방> 진보적 외국인 입국금지
- 2면 · “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” - 방양균씨, 고문수사관 지목
- 재능교육 노조위원장, 6일째 단식투쟁
- <현장> 안양시청 앞 철거민노숙투쟁 - 반복되는 철거폭력, 명드는 심신
- 3면 · 야만의 21c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- 한국영화 약진...올해의 인권영화상 시상

제 1501호(99. 11. 20) / 220

- 1면 · 시민사회, 대 국회 선전포고 - “인권·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” 촉구
- <국가보안법 속보> 전북 종교인, 40일 단식기도 정리
- 2면 · 해고자, 회사 차에 뺑소니 당해...경찰, 항의하던 노동자 강제연행
-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> ② ‘슬픔과 연민’ ‘세계인권선언의 역사’

제 1502호(99. 11. 23) / 222

- 1면 ·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- 목비권도 문제삼아
-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- 인권단체, ‘교정협회’에 정보공개 청구
-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, “병역법 시행령 개정” 요구
- 2면 · <인권시평> 386세대는 없다 (이제훈 한겨레기자)
- 주간인권호름(11월15일~21일)
- 3면 ·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> ③ 한국편

제 1503호(99. 11. 24) / 225

- 1면 ·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- 고려운수 사태 새국면...서울시, 중재 나서기로
-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이동인권의 현실
- 2면 · 의정부 환경미화원, 10여년만의 저항 - 1년에 휴일 단 3일...일방적 정년단축
- <독자투고>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(박호경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)
- 3면 ·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> ④ 한국편

제 1504호(99. 11. 25) / 228

- 1면 ·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! - 국내 시민단체, 뉴라운드 협상 반대 천명
- <자료> WTO-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

- 선전문 배포하던 철거민 연행
- 2면 · “비인도적 범죄, 공소시효 없애야” -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
-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> ⑤ ‘변방’ ‘소코로 노브레-삶은 어딘가에’

제 1505호(99. 11. 26) / 230

- 1면 ·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- 전력산업 분할·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농성
- 술취한 철거용역, 철거민 폭행 - 경찰, 실신한 철거민마저 조사 시도
- 2면 · “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” - 고문피해자들, ‘고문특별법 제정’ 촉구
- <고문피해자들의 증언>
- <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> ⑥ ‘모략당한 나의 이름’ ‘잃어버린 지평선’

제 1506호(99. 11. 27) / 232

- 1면 · 생사기रो에 선 해고노동자 - 삼성그룹 해고자 김용희 씨 14일째 단식농성
- 구 재단, 에바다 장악 기도...최실자 사돈 복지관 채용
- 2면 · 제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-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...다양한 부대행사
- “경찰서비스 현장을 떼어달라” 경찰폭력 앞에 남편은 분신, 아내는 농성

제 1507호(99. 11. 30) / 234

- 1면 · 잃어버린 3년, 계속되는 싸움 - 에바다 농성 3주년, 사태해결 촉구집회 열려
- “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”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
- 2면 ·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① 교육관계법, 부패방지법
- <인권영화제 부대행사> 인권활동가와의 대화 - “소수자 본인의 싸움을 위해”
- 3면 · <인권시평>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
- 주간인권호름(11월22일~28일)

제 1508호(99. 12. 1) / 239

- 1면 ·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- 철거용역, 오물·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
-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-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
- 2면 ·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② 근로기준법·노동시간단축특별법
- 뉴라운드 반대 행동 돌입 - 항의시위·설명회 등 열려
-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- 국보 제정 51년 항의행동 잇따라
- 3·4면 · 99년 11월 총목차 (1487호~1507호)

제 1509호(99. 12. 2) / 243

- 1면 · 이미 반세기 - 국보법 제정 51년, 전국 국보철 합성
- “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” - 재능교육교사노조 전면파업 돌입
- 2면 ·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③ 국가보안법

- “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” - 문화계, ‘규제언령 상향’ 철회 촉구
- ‘올해의 인권영화상’ <열대야> -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 담아

제 1510호(99. 12. 3) / 245

- 1면 · 시애틀의 합성을 서울로 - 민주노총 등 WTO뉴라운드 반대시위 지지
- “전력산업, 날치기 안된다” -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
- <만화사랑방> 국보법 제정 51주년
- 2면 ·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- 두발,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
-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

제 1511호(99. 12. 4) / 247

- 1면 · 법 위에선 경찰권력 -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
-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- 책갈피 홍교선 씨 실행받아
- 21세기, 양심수 사면부터 - 기독교 단체, 성탄절 특사 요청
- 2면 ·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

제 1512호(99. 12. 7) / 249

- 1면 ·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- 대학언론,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
- ‘각서’를 거부합니다 -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, 협조사항에 불과
- 2면 · <인권시평> 우리 딸들이 술과 담배를 한다면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- 주간인권호름(11월30일~12월5일)

제 1513호(99. 12. 8) / 251

- 1면 · 파업, 돈으로 막을 수 있다? - 맨하탄 호텔·한국전력, 노조간부 사퇴 공작
- 민주노총,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 - 국회 앞 농성장 침탈에 분노 들끓어
- 2면 · <판결문>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- “시위진압, 위해 없도록”

제 1514호(99. 12. 9) / 253

- 1면 · ‘변호인 조력받을 권리’ 실질화 - 국회의원, ‘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’ 제출
- “김대중은 퇴진하라” - 민주노총, 무기한 농성 돌입
- 정의평화상, 로잘린 코스타 - 방글라데시 인권운동의 대모
- 2면 · “김훈 중위 사건, 특검제 도입” 촉구 - 천주교 인권위, 추가 의혹 제기
- “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 이에게 영광을” - 정의평화상 수상한 로잘린 코스타

제 1515호(99. 12. 10) / 255

- 1면 · 새천년...풀리지 않은 매듭 - 세계인권선언 1년,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 촉구
- 진관스님, 3년 구형 - 조계종,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

- 2면 · 노동법 어겨 고소된 노동부장관 -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신고서, 보름제 방치돼
- 노근리 대책위, KNCC인권상 수상 -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
- “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” - 문화계, 청소년 연령 상향비판
- <만화사랑방> 대학언론 탄압

제 1516호(99. 12. 11) / 257

- 1면 · “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” - 한나라당, 국보법 개·폐 반대 당론 확정
- <긴급속보> 민중대회 부상자 속출
- 2면 · 베트남에도 ‘노근리’가 있다 - 한국군, 임산부·어린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
- 끝내야 할 전쟁, 대인지뢰 - 대인지뢰 전시회 열려

제 1517호(99. 12. 14) / 259

- 1면 ·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-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
- 분단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- 비전향장기수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
- 2면 · <인권시평> 소유권 대 향유권(강내회, 중앙대 교수)
- 주간인권호름 (12월6일~13일)

제 1518호(99. 12. 15) / 261

- 1면 · 농민들,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- ‘농가부채특별법’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
- 민주노총, 국회 앞 차량시위 - “주 5일 근무 실시” 촉구
- 2면 · 노조전임자 임금지급, 당연한 권리 - 노사정위안 “노조 단결권 방해한다” 비난
- “고엽제 살포, SOFA 위반” -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앞 시위
- <새로나온 논문> 「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」 (전북대 정치외교학 강사 정영선)

제 1519호(99. 12. 16) / 263

- 1면 ·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·폐 찬성 - 응답자 108명 중 69%지지
-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-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3년되던 날
- 2면 · “이근안 처벌, 고문범죄 단죄 시초” - 고문 피해자들 고문경관 고소 줄이어
-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- 사제총포 배후조종 혐의 인정돼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① 동성에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

제 1520호(99. 12. 17) / 265

- 1면 · 김대통령 “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” - 민가협·유가협 회원들과 오찬
-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- 엽서보내기·거리캠페인 전개
- <만화사랑방> 민중대회 폭력시위로 보도한 언론
- 2면 · 새천년 인류의 지향점 “인권” - 전쟁·빈곤·차별의 역사 담은 폴리처상 사진전

·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② 끝나지 않은 ‘작은학교 지키기 운동’

제 1521호(99. 12. 18) / 267

- 1면 ·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- 재능교사노조,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
- 경찰 사과 의사 밝혀 - 아산 지용석 씨 사건
- 2면 · 시민의 신문 기자, 집단 사직 - 회사운영 둘러싸고 경영진과 마찰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③ 지문날인 거부운동

제 1522호(99. 12. 21) / 269

- 1면 ·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-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 출두
- 전국연합 한층목 씨 체포 -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④ 해고노동자 단식 투쟁
- 2면 · <인권시평> 죽음에 대한 예우(공선옥, 소설가)
- 주간인권호름(12월11일~20일)

제 1523호(99. 12. 22) / 271

- 1면 ·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- 농민들 격앙, “정권퇴진투쟁 불사”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⑤ 탈북자, ‘인권피해 기자회견’ 그후
- 2면 · <토론회 중계>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- “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”
-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-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외노협 성명

제 1524호(99. 12. 23) / 273

- 1면 ·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- 시민사회, ‘대정부 투쟁’ 선언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⑥ “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”
- 2면 · <현장 스케치>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- 소년원 아이들, 연극 행사
- <평화와 인권>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

제 1525호(99. 12. 24) / 275

- 1면 ·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-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
- <만화사랑방> 인권법 제정 연기
- 2면 · 봉천 3동, 철거폭력 극성 - 주민들, 온몸에 피멍·전치 5주 부상
-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- 올 한해 11명 영면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⑦(끝)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

호회(99. 12. 24) / 277

- 1면 ·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-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한 조치

제 1526호(99. 12. 28)

/ 278

- 1면 · “고향에 돌려보내주오”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
- 사상전향 요구하는 범원 - “보안관찰처분 적법 판결”
-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, 광화문 점거 기습시위 - “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”
- 2면 · <인권시평> 밀레니엄, 그리고 여의도 ‘농성 천막촌’ (이제훈, 한겨레 기자)
- 주간인권흐름(12월21일~28일)

제 1527호(99. 12. 29)

/ 280

- 1면 · 민주화운동보상·의문사범 통과 -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
- 저무는 99년, 끝나지 않은 싸움 - 해고·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
- “내 아들을 살려내라” -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에 항의집회 열려
- 진관스님, 실형 1년 선고
- 2-4면 ·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년 인권 10대 뉴스

제 1528호(99. 12. 30)

/ 284

- 1면 · 인권하루소식 99년 중간사
- 2면 · 만화로 되돌아본 1999년 한국의 인권
- 3·4면 · 99년 12월 총목차(1508~1528호)

인권하루소식

99년 7월

(제 1402호 ~ 1424호)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3호

(제1402호 ~ 1528호)

2000. 2.

인권운동사랑방

찾아보기

1. 인권일반 /294
<연재-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> <사법개혁/언론개혁> <개혁법안-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> <진단- 표류하는 개혁법안> <민중대회> <해설- 99 민중대회 핵심요구안> <4회 인권영화제>
2. 국가인권위원회 /296

◆ 자유권 영역 ◆

3. 자유권 일반 /296
<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>
4. 수사기관과 인권 /296
1) 검찰 2) 경찰 3) 국가정보원(안기부)
5. 고문 /297
<이근안사건>
6. 과거청산 /298
<의문사 특별법> <학살> <박정희 미화 사업>
7. 군의문사 /298
8. 국가보안법 /298
<이적단체/반국가단체> 1) 영남위원회 사건 2) 민혁명 사건 <이적표현물 사건> 1) 서준식 씨 사건 <기타사건> <국보법 개폐투쟁>
9. 보안관찰법 /301
10. 양심수 /302
<사면> <준법서약> <정치수배> <비전향 장기수> <민가협>
11. 집회와 시위의 자유 /303
12. 사생활/개인정보침해 /303
<사이버 공간의 자유> <주민등록/지문날인> <인권하루소식 캠페인- 주민등록증 을 다 시 생각한다>
13. 감옥의 인권 /304
14. 난민 /304
15. 탈북자/북한 /304

16. 재외동포	1304
17. 대학생인권	1305
<대학언론> <한충련>	

◆ 사회권 영역 ◆

18. 사회권 일반	1305
<빈곤, 실업>	
19. 사회복지시설	1305
<에바다> <특집기획>	
20. 건강권	1306
21. 교육	1306
<작은학교 살리기>	
22. 노동	1307
<전력산업 민영화 논란> <택시노동자> <재능교육노조> <산업재해> <해고> <오트 론> <해직교사> <노동관계법> <특검제, 파업유도 사건> <여성노동자>	
23. 농민	1309
24. 어린이·청소년	1309
25. 여성	1310
<성폭력>	
26. 인종차별/이주노동자	1310
<이주 여성노동자>	
27. 장애인	1311
28. 동성애자	1311
29. 주거권/강제철거	1311
<방배동 강제철거> <상암동 강제철거>	
30. 평화/통일	1312
<대인지뢰> <특집> 평화와 인권	
31. 주한미군	1312
<SOFA개정 국민행동> <조중필 씨 사건> <미군범죄>	
32. 해외인권	1313
<동티모르> <버마>	

33. 기타	1314
<진보인사 입국 금지> <한미투자협정> <뉴라운드> <베트남 학살> <김형찬>	
34. 민간단체	1315
<민주노총> <민가협>	
35. 인권시평/기고	1315
36. 기고/투고	1316
37. 인권간행물	1316
38. 만화사랑방(만평)	1317
39. 주간인권흐름	1317
40. 월 총목차	1318

<찾아보는 법>

방미 때마다 인권상 /99.7.6. 1 1405/7

▶ 99년 7월 6일자 1면 (1405호) 합본호 7쪽

1. 인권일반

· 방미 때마다 인권상 - 김 대통령,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/99.7.6 1 1405	/7
· <공청회> “개혁법안 처리·공안탄압 국정조사”/99.7.29 2 1422	/42
·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- 대한변협, 법률구조 강화/99.7.30 1 1423	/43
· 파도가 맞아간 인권활동가 - 성남의노의집 박홍식 씨 숨져/99.8.1 1 1425	/51
· ‘증거재판주의’를 위한 기도회 - 치과 의사 모녀 살해사건 관련/9.9.7 2 1450	/108
· 인권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-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/9.9.22 2 1461	/131
· “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” - 세계화 명분, 인권·노동·환경 침해/99.11.3 1 1488	/191
· 시민사회, 대 국회 선전포고 - “인권·개혁법안 즉각 처리” 촉구/99.11.20 1 1501	/220
· “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”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/99.11.30 1 1507	/234
· 정의평화상, 로잘린 코스타 - 방글라데시 인권운동의 대모/99.12.9 1 1514	/253
· 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 이에게 영광을 - 로잘린 코스타 씨/99.12.9 2 1514	/254
· 세계인권선언 1년,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 촉구/99.12.10 1 1515	/255
· 새천년 인류의 지향점 “인권” - 풀리처상 사진전/99.12.17 2 1520	/266
· <평화와 인권>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/99.12.23 2 1524	/274
·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년 인권 10대 뉴스/99. 12. 29 2 1527	/281
· 만화로 되돌아본 1999년 한국의 인권/99.12.30 2 1528	/285

<연재>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

·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/99.12.16 2 1519	/264
· ② 끝나지 않은 ‘작은학교 지키기 운동’/99.12.17 2 152-	/266
· ③ 지문날인 거부운동/99.12.18 2 1521	/268
· ④ 해고노동자 단식 투쟁/99.12.21 1 1522	/269
· ⑤ 탈북자, ‘인권피해 기자회견’ 그후/99.12.22 1 1523	/271
· ⑥ “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”/99.12.23 1 1524	/273
· ⑦(끝)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/99.12.24 2 1525	/276

<사법개혁/언론개혁>

· 사법부를 국민에게 - 시민단체, 사법개혁 뛰어들어/99.7.21 1 1416	/29
· 언론개혁, 민주적 방송법부터 -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/99.7.27 1 1420	/37
·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- 시민단체,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/99.8.4 2 1426	/54
·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- 긴급제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/99.9.10 2 1453	/115
· 민주방송법 운동본부 발족 - 전국적 서명운동과 홍보 박차/99.9.29 2 1463	/135
· ‘변호인 조력받을 권리’ 실질화 - ‘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’ 제출/99.12.9 1 1514	/253

<개혁법안>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

·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/99.7.21 2 1416	/3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· ② 산 넘어 산,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/99.7.22 2 1417	/32
·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/99.7.23 2 1418	/34
·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/99.7.24 2 1419	/36

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

· ① 교육관계법, 부패방지법/99.11.30 2 1507	/235
· ② 근로기준법·노동시간단축 특별법/99.12.1 2 1508	/240
· ③ 국가보안법/99.12.2 2 1509	/244
·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/99.12.3 2 1510	/246
·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/99.12.4 2 1511	/248

<민중대회>

· 민중대회, 오는 14일 여의도서 ... 각계민중 4만명 결집 예상/99.11.10 2 1493	/202
·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-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, 강제연행/99.11.16 1 1497	/210
· <긴급속보> 민중대회 부상자 속출 /99.12.11 1 1516	/257
· <만화사랑방> 민중대회 폭력시위로 보도한 언론/99.12.17 1 1520	/265
·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- 시민사회, ‘대정부 투쟁’ 선언/99.12.23 1 1524	/273

<해설> 99 민중대회 핵심요구안

· <서론> 민중대회 10대 요구안/99.11.10 2 1493	/202
· ① 노·농·빈, 생존 건 요구/99. 11. 11 2 1494	/204
· ② “공기업 민영화·투자협정 중단”/99.11.12 2 1495	/206
· ③ “건강권·교육권 보장”/99.11.13 2 1496	/209

<4회 인권영화제>

· 20세기 돌아보며 새천년 인권 - 인권영화제 11월 26일 개막/99.10.29 2 1485/183	
· 작품소개 ① ‘모든 권력을 민중에게’ ‘에스코바의 자살골’/99.11.18 2 1499	/215
· 영화제 상영일정표/99.11.18 3 1499	/216
· 야만의 21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- 한국영화 약진/99.11.19 3 1500	/219
· 작품소개 ② ‘슬픔과 연민’ ‘세계인권선언의 역사’/99.11.20 2 1501	/221
· 작품소개 ③ 한국편/99.11.23 3 1502	/224
· 작품소개 ④ 한국편/99.11.24 3 1503	/227
· 작품 소개 ⑤ ‘변방’ ‘소코로 노브레-삶은 어딘가에’/99.11.25 2 1504	/229
· 작품 소개 ⑥ ‘모략당한 나의 이름’ ‘잃어버린 지평선’/99.11.26 2 1505	/231
·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-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/99.11.27 2 1506	/233
· <부대행사> 인권활동가와의 대화/99.11.30 2 1507	/235
· ‘올해의 인권영화상’ <열대야> -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 담아/99.12.2 2 1509	/244

2. 국가인권위원회

- 개혁법안, 어떻게 돼가고 있나① - 기로에 선 인권법안/99.7.21 2 1416 /30
-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? - 인권법공대위,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 반대/99.8.13 2 1433/69
-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- 법무부, 국가인권위 '법인' 고집/99.8.27 1. 1443/88
-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/99.12.3 2 1510 /246
- 김대통령 "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" - 민가협·유가협 회원들과 오찬/99.12.17 1 1520/265
- <만화사랑방> 인권법 제정 연기/99.12.24 1 1525 /275

◆ 자유권 영역 ◆

3. 자유권 일반

<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>

- ① 서론 :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/99.8.21 2 1439 /81
- ② 18·19조 : 사상과 양심의 자유/99.8.24 2 1440 /83
- ③ 보안관찰법/99.8.25 2 1441 /85
- ④ 국가보안법 1/99.8.26 2 1442 /87
- ⑤ 국가보안법 2/99.8.27 2 1443 /89
- ⑥ 인간적인 처우 : 행정법<끝>/99.8.28 2 1444 /91

4. 수사기관과 인권

1) 검찰

- 현직검사 피소 -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/99.10.2 1 1466 /143
- 검찰증거 비과학적 - 치과 의사 모녀살해사건, 새 주장/99.10.20 2 1478 /169
- 검찰, 국감에 거짓 답변 - 피해자에게는 사과/99.10.22 1 1480 /172

2) 경찰

- "총기사용 문제 없어" - 서울지검, 총기남용 경찰에 '각하' 처분/99.7.7 1 1406 /9
-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- 서강대생,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/99.7.20 2 1415 /28
- 경찰, 노숙자 폭행의혹 -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감채워/99.7.22 1 1417 /31
- 내 아들은 억울하다 - 가혹행위, 웨어 맞추기 수사 의문/99.7.23 1 1418 /33
-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- 경찰, 합법 집회 방해, 폭력 행사/99.8.6 1 1428 /57
- 경찰, 또 성추행 - 피해여성들,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/99.8.7 1 1429 /59
- 불법연행 판친 8·15 - 경찰,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/99.8.17 1 1435 /72

- 입에 총 들이대 -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/99.8.19 1 1437 /76
-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- 경찰청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/99.8.26 1 1442 /86
- 활동은 하는 겁니까? -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에 정보공개 요구/99.9.9 2 1452 /113
-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- 인권연대, 10월 한달 간 집중 캠페인/99.9.29 1 1463 /134
- 경찰 폭력시위 유도 의혹 - 평화 시위대에 돌 던진 후 발뺌/99.9.29 2 1463 /135
- <인터뷰>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실장 - "편견도 경찰폭력이다"/99.10.2 2 1466 /144
- "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" - 검찰,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/99.10.5 1 1467 /145
- 경찰청 "부당한 인권교육 실시" 약속 -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/99.10.12 1 1472 /155
-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-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연행/99.10.13 1 1473 /157
- "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",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/99.10.21 2 1479 /171
- "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" - 남편은 분신, 아내는 농성/99.11.27 2 1506 /233
- <판결문>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/99.12.8 2 1513 /252
- 경찰 사과 의사 밝혀 - 아산 지용석 씨 사건/99.12.18 1 1521 /267

3) 국가정보원(안기부)

- 프락치 사건, 법정으로 - 천 국정원장 고소/99.7.15 1 14121 /21
- 검찰은 자중하라 -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/99.7.17 1 1414 /25
- 국정원, 프락치 강요 부인 - "싫으면 그만, 강요는 없었다"/99.8.24 1 1440 /82
-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-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 안재우기 주장/99.9.1 1 1446 /97
- 안기부 명령이 되돌아 온다 - 국정원, 전국연합 전격 수색/99.9.14 1 1455 /118
-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- 하영옥 씨 "박카스 먹고 이상증세" 주장/99.9.16 2 1457 /123

5. 고문

-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-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 안재우기 주장/99.9.1 1 1446 /97
-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- 하영옥 씨 "박카스 먹고 이상증세" 주장/99.9.16 2 1457 /123
- 안사청도 이적단체 -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/99.10.6 1 1468 /147

<이근안사건>

-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-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"모두 유죄"/99.10.22 1 1480 /172
-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-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/99.10.30 1 1486 /184
- 민가협, '이근안 엄벌' 촉구/99.10.30 1 1486 /184
- '고문특별법' 제정 촉구 - 민가협 "배후 철저히 색출" 주장/99.11.5 1 1490 /195
-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"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"/99.11.12 1 1495 /205
- <요약>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- "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"/99.11.12 3 1495 /207
- "배후 색출해 처벌하라" 유가협 등 경찰청 항의시위/99.11.17 1 1498 /212
- "정형군이 직접 고문했다" - 방양균씨, 고문수사관 지목/99.11.19 2 1500 /218

- “비인도적 범죄, 공소시효 없애야” - “국제법의 국내법 적용” 촉구/99.11.25 2 1504 /229
- “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” - 고문피해자, ‘특별법 제정’ 촉구/99.11.26 2 1505 /231
- <고문피해자들의 증언>/99.11.26 2 1505 /231
- “이근안 처벌, 고문범죄 단죄 시초” - 피해자들, 고문경관 고소 /99.12.16 2 1519 /264

6. 과거청산

-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/99.10.16 2 1476 /165
- 30년만의 조출한 추모제 -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고 권재혁 씨/99.11.5 1 1490 /195
-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- 올 한해 11명 영면/99.12.24 2 1525 /276

<의문사 특별법>

-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- 인권단체,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/99.8.4 1 1426 /53
- <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성명서> 의문사특별법안 문제 많다/99.8.4 2 1426 /54
-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- 유가협, 국회앞 단식농성/99.8.5 1 1427 /55
- <현장스케치>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- “이대론 물러설 수 없다”/99.11.3 2 1488 /192
-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- 국민적 합의 미흡/99.11.6 2 1491 /198
- 민주화운동보상·의문사법 통과 -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/99.12.29 1 1527 /280

<학살>

- 노근리는 병산의 일각 - 제주·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/99.10.6 2 1468 /148
-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명/99.10.16 2 1476 /165
- 노근리 대책위, KNCC인권상 수상 -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/99.12.10 2 1515 /256

<박정희 미화 사업>

- “박정희는 절대 안된다” - 70년대 노동운동가, 지원사업 반대/99.10.6 2 1468 /148
-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- 시민단체, 강력 반발/99.10.26 1 1482 /176

7. 군의문사

- “김훈 중위 사건, 특검제 도입” 촉구/99.12.9 2 1514 /254

8. 국가보안법

-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- 민가협, 국보법 만화전/99.7.22 1 1417 /31
- 모성애를 들먹였다 -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/99.8.13 2 1433 /69

- 큰 감옥에서의 투쟁 선언 - 8·15 출소 양심수들, 국보법 폐지 운동/99.8.24 1 1440 /82
-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- 국가보안법 2/99.8.27 2 1443 /89
- 유엔인권이사회, “국보법 문제” 지적 - 정부 자유권보고서 심의/99.10.26 2 1482 /177
-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- 유엔인권이사회 “호평”, 사실과 달라/99.10.28 1 1484 /180
- 유엔,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... “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”/99.11.6 1 1491 /197
- 유엔인권이사회, 한국정부 비판 - 불충분한 정보 제공/99.11.6 2 1491 /198
-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③ 국가보안법/99.12.2 2 1509 /244
- “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” - 한나라당, 국보법 개·폐 반대 확정/99.12.11 1 1516 /257
-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·폐 찬성 - 응답자 108명 중 69% 지지/99.12.16 1 1519 /263

<이적단체/반국가단체>

-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- 서울진보청년회, 전원유죄/99.7.3 1 1404 /5
- 원광대 ‘자주대오재건위’ 조작의혹 -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/99.8.1 2 1425 /51
- 또 국보법 7조나 -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/99.10.2 1 1466 /143
- 안사청도 이적단체 -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/99.10.6 1 1468 /147

1) 영남위원회 사건

-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-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/99.7.22 1 1417 /31
- 대법원, 영남위사건 일부 파기환송 -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/99.9.4 1 1449 /105

2) 민혁명당 사건

- 국보법 개정 논의하자 또 간첩사건 -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체포/99.8.20 2 1438 /79
-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-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 안재우기 주장/99.9.1 1 1446 /97
-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- 하영옥 씨 “탁카스 먹고 이상증세” 주장/99.9.16 2 1457 /123

<이적표현물 사건>

- 4·3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- 제주고법, 원심개고 무죄선고/99.10.1 1 1465 /141
-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- 이적표현물 소지·배포 혐의/99.10.8 2 1470 /152
- <요약>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(조선대 녹두대 이적단체 사건)/99.10.15 2 1475 /163
-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-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/99.10.27 1 1483 /178
- 재판장 사상사비 계속돼 - 법원, “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”/99.11.10 1 1493 /201
-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- 책갈피 홍교선 씨 실행받아/99.12.4 1 1511 /247

1) 서준식 씨 사건

- 서준식은 무죄다 -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,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/99.7.1 1 1402 /1
-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- 참여연대 등 성명/99.7.3 2 1404 /6
-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- 각 계,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/99.7.6 1 1405 /7

·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- 레드헌트 검증 예정/99.7.7 1 1406	/9
· 서준식은 무죄다 -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/99.7.23 1 1418	/33
· 민교협, "서준식 무죄선고" 촉구/99.9.7. 1 1450	/107
· 서준식 씨 국보법 무죄 판결 - 보안관찰법·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/99.9.8 1 1451	/110
·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, 담당 경찰관 증인으로 신청/99.11.13 1 1496	/208

<기타사건>

· <현장스케치>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- "뭐가 문젠니까?"/99.9.10 1 1453	/114
· 진관스님, 3년 구형 - 조계종,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/99.12.10 1 1515	/255
· 전국연합 한층목 씨 체포 -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협의/99.12.21 1 1522	/269
· 진관스님, 실형 1년 선고/99.12.29 1 1527	/280

<국보법 개폐투쟁>

·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-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/99.7.9 1 1408	/13
· 국제앰네스티 8·15사면 우려 표명 -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/99.8.18 2 1436/75	
·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-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/99.8.21 1 1439	/80
· 국보법 폐지, 대회년의 정신 -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/99.8.26 1 1442	/86
·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- 개정·폐지론 한자리, 7조 삭제 힘 실어/99.9.2 1 1447	/101
· <참고자료> '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'의 원칙/99.9.2 1 1447	/101
· <참고자료> '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' 제안 이유/99.9.2 2 1447	/102
·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-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성 제기/99.9.3 1 1448	/103
· <인터뷰> 김인국 신부 - 신부들, 단식 삭발로 국보법 폐지 의지 천명/99.9.8 1 1451	/110
· "반대! 국보법" 압력 고조 -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/99.9.9 1 1452	/112
· 기독교계, 국보법 폐지 촉구 -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/99.9.10 1 1453	/114
·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- 천주교 사제단식에 신자들 동참/99.9.15 1 1456	/120
· "7조만 부분 개정" 검토중 -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 밝혀/99.9.16 1 1457	/122
· "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" - 민화협, 국보법 토론회 개최/99.9.17 1 1458	/124
· 호주, 국보법 반대 집회 -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/99.9.18 1 1459	/126
· 국보법 입장이 뭐니까? - 전북지역 사회단체들,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/99.9.18 2 1459/127	
· 1백15개 단체 "국보법 반대" 결집 -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/99.9.21 1 1460/128	
· 4개 교단 "국보법 폐지" 목청 -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/99.9.28 1 1462	/132
·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-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/99.9.29 1 1463	/134
· 국보법 존폐 문제 격론 - 국민회의, 국보법 토론회 개최/99.9.30 1 1464	/136
· <속보>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동참/99.10.1 1 1465	/141
· <속보> 미주·호주 인권단체 지지서한 발송/99.10.5 1 1467	/145
· <속보> 부산 사회단체 단식농성 돌입, 재미동포단체 동참/99.10.7 2 1469	/150
· <속보>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, 부산시경 문화제 방해공작/99.10.9 1 1471	/153

·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- 상지대 교직원, 13년만의 양심고백/99.10.13 1 1473	/157
· 일본 인권단체, "국보법 철폐" 서명운동 개시/99.10.14 1 1474	/160
· <속보> 민주노동당 'NO! 국보법' 스티커, 연대회의 대표자 시국대회/99.10.15 2 1475/163	
· <속보>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/99.10.16 1 1476	/164
· <속보>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/99.10.19 1 1477	/166
· <속보> 광주전남, 천막농성 돌입/99.10.21 1 1479	/168
· "핵심 비켜간 기만책" - 시민사회계,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대/99.10.26 1 1482	/176
· <속보> 청년진보당, 단식농성 돌입/99.10.26 1 1482	/177
· 교수들,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- 국보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/99. 10. 29 1 1485	/182
· <속보> 인천지역 동참, 기독교계 정치권에 항의서한 발송/99. 10. 29 1 1485	/182
· <속보> 교수 1천명, 국보법 폐지 서명/99.11.2 1 1487	/189
· 국회 앞 집회·쇠사슬 농성 - "국보법 철폐" 23만명 국회청원/99.11.3 2 1488	/192
· 국보법 개정반대 한나라당 규탄 - 63명 '인권의 적'/99.11.4 1 1489	/193
· 국보법 철폐 3백명 농성 돌입, 전국에서 12일까지/99.11.4 1 1489	/193
· 색깔론, 이대론 안된다 - 민교협,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/99.11.6 1 1491	/197
· <속보> 전북 종교인들 단식 29일째, 청년단체들, 삭발식 가져/99.11.9 1 1492	/199
·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- 연대회의·국민연대, 국보법 공동토론회/99.11.17 1 1498/212	
· <속보> 전북 종교인, 40일 단식기도 정리/99.11.20 1 1501	/220
·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- 국보 제정 51년 항의행동 잇따라/99.12.1 2 1508	/240
· 이미 반세기 - 국보법 제정 51년, 전국 국보철폐 함성/99.12.2 1 1509	/243

9. 보안관찰법

· 보안관찰 취소판결 -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/99.7.24 1 1419	/35
· <자료> 시민·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- 보안관찰법/99.8.25 2 1441	/85
· 서준식 씨 국보법 무죄 판결 - 보안관찰법·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/99.9.8 1 1451	/110
· 이해정 씨도 승소 -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/99.10.7 1 1469	/149
· 김삼석 씨 보안관찰처분취소/99.10.8 1 1470	/151
· <논평> 보안관찰/99.10.8 2 1470	/152
· 왜 우리를 감시하는가 -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/99.10.19 1 1477	/166
· <새로나온 책> 「제2의 국가보안법, 보안관찰관련 자료집(1)」/99.10.20 1 1478	/168
· <만화사랑방> 보안관찰, 이젠 그만해라/99.10.22 2 1480	/173
· "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"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/99.11.13 1 1496	/208
· 사상전향 요구하는 법원 - "보안관찰처분 적법 판결"/99.12.28 1 1526	/278

10. 양심수

<사면>

- 8·15 사면에 바란다 - 정치수배자, 수배해제 촉구 단식농성/99.8.1 1 1425 /51
- 8·15 사면, 똑바로 풀어라 -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사면/99.8.10 2 1430 /62
- 반신반의 대사면 - 법무부 준법서약 고집하나/99.8.11 1 1431 /63
- 사면권 개정 청원 - 민변, 사면시 대법원장 의견 청취 조항 신설/99.8.11 1 1431 /63
-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- 인권사회단체, '사면권 악용마라' 한 목소리/99.8.12 1 1432 /65
-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-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넣기/99. 8.13 1 1433 /68
- 8·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/99.8.13 1 1433 /68
-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-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, 전체 22%만 석방해/99.8.14 1 1434 /70
- <인터뷰>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-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/99.8.14 1 1434 /70
-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- 김현철 사면 취소 촉구/99.8.17 1 1435 /72
- 사면 끝 구속시작 -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/99.8.18 2 1436 /75
- 김현철 사면 비난 봇물 - 김대통령도 사면권 남용/99.8.18 2 1436 /75
- <현장스케치> '분노의 목요집회' - 김현철 사면은 양심수 모독/99.8.20 2 1438 /79
-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-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/99.8.28 1 1444 /90
-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, "병역법 시행령 개정" 요구/99.11.23 1 1502 /222
- 21세기, 양심수 사면부터 - 기독교 단체, 성탄절 특사 요청/99.12.4 1 1511 /247

<준법서약>

-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- 김 대통령,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/99.7.7 1 1406 /9
-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- 법무부, 8.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/99.7.27 1 1420 /37
- 준법서약 폐지주장, 보복성 재수감 - 8·15출소자 가석방 취소/99.10.7 1 1469 /149
- 민가협,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-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/99.11.16 1 1497 /210

<정치수배>

-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- 종교인·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/99.7.9 2 1408 /14
-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-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 출두/99.12.21 1 1522 /269

<비전향 장기수>

- 분단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- 비전향장기수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/99.12.14 1 1517/259
-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-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해/99.12.24 1 호외 /277
- "고향에 돌려보내주세요"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/99.12.28 1 1526 /278

<민가협> ▶ 민간단체 편

11. 집회와 시위의 자유

-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- 경찰, 대학생 집회신고 불허 잇따라/99.8.1 1 1425 /51
- 표현의 자유 깃발은 NGO대회 - 대통령 경호 핑계, 시위대 몰아내/99.10.12 1 1472 /155
-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- 집시법 시행령, 유인물 배포도 제한/99.10.23 1 1481 /174
- <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>/99.10.23 1 1481 /174
- <기자의 눈>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?/99.10.29 1 1485 /182
- 범위에선 경찰권력 -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/99.12.4 1 1511 /247
- '각서'를 거부합시다 -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, 협조사항에 불과/99.12.7 1 1512 /249
-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-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/99.12.14 1 1517 /259

12. 사생활/개인정보침해

-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- 사회단체 회원,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/99.10.20 1 1478 /168
- "감청현황을 밝혀라" - 청주 정평위, 자료공개 요청/99.10.21 2 1479 /171
- 개인정보유출, 본인만 모른다 - 통신티밀보호법 입법청원/99.10.22 2 1480 /173

<사이버 공간의 자유>

- 통신검열 이의 있다 - 통신인들 위헌소송 제기/99.8.11 1 1431 /63
-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행선고 - 통신검열, 감시 강화 우려/99.8.25 1 1441 /84
- 계속되는 통신검열 -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/99.10.6 2 1468 /148

<주민등록/지문날인>

- 지문날인은 망신 -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/99.7.2 1 1403 /3
- 범죄자 거부 선언 - 통신연대, 지문날인 반대/99.7.9 2. 1408 /14
- 지문 날인 거부 이렇게 - 운동본부,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/99.7.14 2 1411 /20
- 주민카드 거부 확산 - 청년진보당, 전국 서명운동/99.7.17 1 1414 /25
-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-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/99.7.20 1 1415 /27
-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- 행정기관, 주민증 경신 중용/99.7.30 1 1423 /43
-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-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공개 항의서한 보내/99.8.12 1 1432 /65
-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- 운동본부,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/99.8.13 2 1433 /69
-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- 헌법소원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/99.9.1 2 1446 /98
- <참고자료> 1천여 곳 동사무소에 직권남용 중지 권고 서한 발송/99.9.1 2 1446 /98
- 청주시,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키로/99.11.3 1 1488 /191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③ 지문날인 거부운동/99.12.18 2 1521 /268

<인권하루소식 캠페인>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

-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/99.7.6 2 1405 /8
- ⑧ <끝> 지문날인 거부운동 /99.7.13 2 1410 /18

13. 감옥의 인권

- 재소자도 인간이다 -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/99.7.3 1 1404 /5
- 배상심위, 재소자 청원권 목살사건에 기각결정/99.7.28 1 1421 /39
-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- 출소자,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/99.8.7 2 1429 /60
- 광주교도소, 미결수에 폭력 - '소내 폭언·폭행 뿌리뽑자' 거센 요구/99.8.28 1 1444 /90
- 부산구치소 충돌 사주했다 - 일반수 동원 양심수 길들이기 목적/99.8.31 1 1445 /92
- 부산교도소 폭력사태 규탄 - 사회단체, "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"/99.9.3 2 1448 /104
-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- 법무부, "법제정 후 여론 수렴"/99.10.13 2 1473 /158
-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- 인권단체, '교정협회'에 정보공개 청구/99.11.23 1 1502 /222

14. 난민

- 북한난민 여성이 대다수 - 인신매매, 무임금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/99.8.31 1 1445 /92
-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- 출입국관리소,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/99.9.28 2 1462 /133
- <기고> 또하나의 전쟁터 : 버마·태국 (배경내, 인권운동사랑방)/99.11.17 2 1498 /213

15. 탈북자/북한

- 북한 식량위기 계속 - WFP 위기 보고서 밝혀/99.7.22 2 1417 /32
- 식량과 희망을 동시에 - 북녘 어린이 돕기 대장정/99.7.29 1 1422 /41
- 북한난민 여성이 대다수 - 인신매매, 무임금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/99.8.31 1 1445 /92
- 탈북자 김길선 씨, "탈북자 난민인정은 북한인권 해결 열쇠"/99.10.14 2 1474 /161

16. 재외동포

- 모국의 치우친 애정 - 재외동포법, 중국·구 소련 동포 제외/99.7.14 1 1411 /19
-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- 기본 생각을 바꾸라/99.7.14 1 1411 /19
- <현장스케치> 고국땅 설움이 더하다 -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/99.8.14 2 1434/71
- <현장스케치> '역사가 멈춘 민족' 사진전/99.8.26 2 1442 /87

17. 대학생인권

<대학언론>

-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되라 - 해임된 대학기자들, 무기한 농성 돌입/99.7.8 1 1407 /11
-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- 대학언론, 교육당국 탄압에 신음/99.12.7 1 1512 /249

<한총련>

- 한총련의 아비 된 죄 -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/99.7.13 1 1410 /17
-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- 서강대생,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/99.7.20 2 1415 /27
-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- 경찰, 대학생 집회신고 불허 잇따라/99.8.1 1 1425 /51
-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- 한학협, 협박·회유한 경찰 고발/99.9.4 2 1449 /106

◆ 사회권 영역 ◆

18. 사회권 일반

- <토론회 지상중계>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/99.12.22 2 1523 /272

<빈곤, 실업>

-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- 기획예산처, 생활보호예산 축소/99.9.8 2 1451 /111
- '생산적 복지'도 말뿐이었나 - 사회단체, "사회복지예산 사실 제자리"/99.9.15 2 1456 /121
-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-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/99.11.11 1 1494 /203
-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-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/99.12.1 1 1508 /239
-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-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/99.12.24 1 1525 /275

19. 사회복지시설

-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-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/99.7.16 1 1413 /23
-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- 노재중 또 고소 당해/99.9.16 2 1457 /123
- "비리시설장 영구퇴출" - 10개 사회단체,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/99.11.10 2 1493 /202

<에바다>

- <만화사랑방>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에바다/99.7.2. 1 1403 /3
- 에바다 서울 상경 - 명동성당 농성돌입/99.7.6 2 1405 /8
- 김 대통령 약속 세 번, 여전한 '에바다' - 에바다농아원생, 서울 투쟁/99.7.13 2 1410 /18

· 새 국면 맞은 에바다 - 이성재 의원 등 신입이사진 활동 재개/99.7.20 1 1415	/27
· “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” - 에바다 토론회 개최/99.8.19 2 1437	/77
·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- 에바다 투쟁 1천일,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/99.8.20 1 1438	/78
· 에바다 사태 새 국면 - 개혁 이사진에 힘 실릴 듯/99.9.7 1 1450	/107
· 에바다폭력사태, 재단측이 사주 - 농아학생 입막음 시도/99.10.23 2 1481	/175
· 에바다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- 교사들 학교출입 못한지 4일/99.10.28 2 1484	/181
· 구 재단, 에바다 장악 기도...최실자 사돈 복지관 채용/99.11.27 1 1506	/232
· 잃어버린 3년, 계속되는 싸움 - 에바다 농성 3주년/99.11.30 1 1507	/234
·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, 광화문 점거 기습시위/99.12.28 1 1526	/278

<특집기획>

· ① 육지 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그후 1년 - 남아있는 문제들/99.7.15 2 1412	/22
· ② 양지마을의 형제들, 인권유린의 온상 시설- 처벌은 시늬 뿐/99.7.16 2 1413	/24
· ③ 사회복지시설문제, 충격요법을 벗어나야/99.7.17 2 1414	/26

20. 건강권

· 갈 곳 없는 결핵환자 - 목포결핵병원, 조기퇴원유도/99.7.24 1 1419	/35
·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- 의보·국민연금 제정통합 촉구/99.7.28 2 1421	/40
· 의료보험통합의 난제와 의의 (김재광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)/99.8.6 2 1428	/58
·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- 국립목포결핵병원 ‘치료보다 실적위주’/99.9.14 1 1455	/118
· “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...” 생사기로서 내몰린 결핵환자/99.11.18 2 1499	/215

21. 교육

· 인권교육의 새 도전 - 인권단체, 여름 인권캠프/99.7.14 1 1411	/19
· <대학생 인권캠프 현장을 찾아서> 내것이 된 ‘인권과 친구하기’/99.7.30 2 1423	/44
· 공교육은 죽고, 사교육은 확대 - 한국교육연구소, 공교육 현실 진단/99.10.9 2 1471	/154
· “공교육 포기”반발 - 교육청, 수업료 인상 방침/99.10.23 2 1481	/175
· <해설>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③ “건강권·교육권 보장”/99.11.13 2 1496	/209
· <진단> 표류하는 개혁법안 ① 교육관계법, 부패방지법/99.11.30 2 1507	/235

<작은학교 살리기>

· 통계합 해답은 백지화 - ‘작은 학교 살리기’ 전국 메아리/99.7.8 1 1407	/11
· “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” -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학교 /99.7.10 2 1409	/16

22. 노동

· 이것이 징계 최소화냐 - 서울지하철노조, 대합실 노숙 투쟁 7일째/99.7.10 1 1409	/15
·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- 조폐공·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/99.7.13 1 1410	/17
· 퇴직이나 직권면직이나 - 국세청,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/99.7.28 1 1421	/39
·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- 파업조합원, 미 헌병대에 연행/99.7.31 1 1424	/45
· 통행증을 돌려달라 - 사무금융노조, 미8군에 항의서한/99.8.1 2 1425	/52
·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- 철도청 노동자, 부당징계무효 소송제기/99.9.10 2 1453	/115
· 전운 감도는 한라중공업 조선소 - 경찰병력 배치, 헬기서 유인물 뿌려/99.10.1 1 1465/141	
· 노동자 폭행, 감독기관 수수방관 - 관리직 간부에 맞아 하반신 마비/99.10.15 1 1475/162	
· 정부, 파업노동자 ‘폭력배’ 매도 - 유엔인권이사회 허위보고 드러나/99.11.9 1 1492	/199
· 의정부 환경미화원, 10여년만의 저항 - 1년에 휴일 단 3일/99.11.24 2 1503	/226
· 파업, 돈으로 막을 수 있다? - 맨하탄 호텔·한국전력/99.12.8 1 1513	/251
· 시민의 신문 기자, 집단 사직 - 회사운영 둘러싸고 경영진과 마찰/99.12.18 2 1521	/268

<전력산업 민영화 논란>

· “한전 민영화 웬말?” - 사회단체, 부작용 경고/99.10.2 1 1466	/143
· 성직자, 한전 민영화 반대 - 공공성 포기 철회 요구/99.10.20 2 1478	/169
· 한전민영화 반대 - 성직자에 이어 교수도 동참/99.10.21 1 1479	/170
·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- 전력산업 분할 위협에 노조 농성/99.11.26 1 1505	/230
· “전력산업, 날치기 안된다” -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/99.12.3 1 1510	/245

<택시노동자>

· 택시노동자 또 분신 -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/99.8.25 2 1441	/85
· 분신노동자 끝내 숨져 - 노동자 박용순 씨 운명/99.8.27 1 1443	/88
· 강패동원, 노조원 폭행 - 고려운수, 완전월급제 갈등/99.11.18 1 1499	/214
·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- 고려운수 사태 새국면/99.11.24 1 1503	/225

<재능교육노조>

·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- 저임금·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/99.10.27 2 1483	/179
· 학습지 교사, “우리도 노동자” -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/99.11.11 1 1494/203	
· 재능교육 노조위원장, 6일째 단식투쟁/99.11.19 2 1500	/218
· “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” - 재능교육교사노조 전면파업 돌입/99.12.2 1 1509	/243
· 노동법 어겨 고소된 노동부장관 - 노조 설립신고서, 보름째 방치/99.12.10 2 1515	/256
·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- 재능교사노조, 노조 신고필증 받아/99.12.18 1 1521	/267

<산업재해>

-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-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/99.7.16 1 1413 /23
-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- 근로복지공단, 유족에 폭력 행사/99.7.31 1 1424 /45
- <인터뷰> 동국합섬 퇴직자 정희양 씨 - 직업병 위험 호소/99.8.5 2 1427 /56
-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- 경찰,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/99.8.18 1 1436 /74
-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- "요양관리 허술 ... 자살 사고 초래"/99.9.7. 1 1450 /107
-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-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러 사망/99.9.30 1 1464 /136
- 저무는 99년, 끝나지 않은 싸움 - 해고·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/99.12.29 1 1527 /280

<해고>

-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- 문정현 신부, 무기한 단식농성/99.7.10 1 1409 /15
- <인터뷰> "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" - 문정현 신부/99.7.15 1 1412 /21
- 국회의원들 얼굴 좀 보자 - 면담요구한 현대중기노동자 연행/99.8.12 2 1432 /66
-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- 행정법원, 회사의 보복성 해고 제동/99.8.20 2 1438 /79
-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- 복직요구 농성도중/99.9.9 1 1452 /112
- 낮엔 복직투쟁, 밤엔 노숙 -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, 분노의 1천일/99.9.11 1 1454 /116
- 해고노동자 40일 단식투쟁 - 고려화학 연기흙 씨/99.10.16 1 1476 /164
- 복직을 향한 고난의 행진 - 전해투 전국순회투쟁/99.10.19 1 1477 /166
- "원직복직, 꿈도 꾸지 마라" - 41일 단식에 회사측 꿈적 안해/99.10.23 2 1481 /175
- 인천 한양공영, 해고자 복직 약속 불이행/99.10.29 2 1485 /183
- 생사기로에 선 해고노동자 - 삼성그룹 김용희 씨 14일째 단식농성/99.11.27 1 1506 /232
-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- 삼미특수강 노동자 투쟁 3년되던 날/99.12.16 1 1519 /263

<오토론>

- 복직 뒤 왕따·부당전출 - 한화오토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/99.10.9 1 1471 /153
- 오토론노동자 또 폭행당해 - 사측 농성장 덮쳐/99.10.16 2 1476 /165
- 해고자, 회사 차에 뺨소니 당해...경찰, 항의하던 노동자 강제연행/99.11.20 2 1501 /221
- 뺨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- 목비권도 문제삼아/99.11.23 1 1502 /222

<해직교사>

- 잊혀진 사람들 -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/99.7.1 1 1402 /1
-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- 인권단체들,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/99.7.10 1 1409 /15

<노동관계법>

- 근로자 없는 근로자 복지법 -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/99.10.16 1 1476 /164
-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- 민주노총,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/99.10.21 1 1479 /170

- 민주노총, 국회 앞 차량시위 - "주 5일 근무 실시" 촉구/99.12.15 1 1518 /261
- 노조전임자 임금지급, 당연한 권리 - "노조 단결권 방해한다"/99.12.15 2 1518 /262

<특검제, 파업유도 사건>

- 파업유도공작, 처벌만 남았다 - 민주노총, 진상 보고서 공개/99.7.1 2 1402 /2
- 온전한 특검제 요구 -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/99.7.6 2 1405 /8
- 조사 받아야 할 검찰 - 조폐창, 검찰 개입 은폐 비난/99.7.29 1 1422 /41
- 형평성 잃은 재판부 - 진형구 보석석방, 노동계 반발/99.8.27 2 1443 /89
-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-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/99.9.22 1 1461 /130
- 민변,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/99.11.4 2 1489 /194

<여성노동자>

- 여성노동자 뭉친다 -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/99.7.3 2 1404 /6
-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-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/99.7.15 1 1412 /21
- <만화 사랑방>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/99.7.16 1 1413 /23
- 늘어난 여성차별 -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, 성차별 호소/99.7.28 2 1421 /40
- 여성·아동 보호가 규제냐 - 노동·여성단체 크게 반발/99.8.19 2 1437 /77
- 북한난민 여성이 대다수 - 인신매매, 무임금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/99.8.31 1 1445 /92
- 8시간 일하고 싶다 - 여성노동자 4백22인의 현실과 희망/99.9.3 2 1448 /104
-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- 장시간 노동요구에 연령제한도/99.10.21 2 1479 /171
- "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" -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/99.11.4 2 1489 /194
-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- 장시간 노동, 4대보험 가입율 30% 이하/99.11.10 1 1493/201
-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생활 -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/99.11.12 1 1495 /205
- <인터뷰 자료>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/99.11.12 1 1495 /205

23. 농민

- 농촌을 살리자 - 전국농민회총연맹, 농가부채 탕감 촉구/99.7.2 1 1403 /3
- 농촌을 바꾸자 -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/99.7.8 2 1407 /12
- <기고> 농민의 미래, 협동조합 개혁(사회주 전국농민회총연맹)/99.7.14 2 1411 /20
- 농민들, 국회의원실 점거 -'농가부채특별법' 등 개혁법안 제정 촉구/99.12.15 1 1518 /261
-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- 농민들 격앙, "정권퇴진투쟁 불사"/99.12.22 1 1523 /271

24. 어린이 청소년

- 아동권 2차 정부보고서 토론회 -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/99.8.17 2 1435 /73

-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/99.11.24 1 1503 /225
- “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” - 문화계, ‘규제연령 상향’철회 촉구/99.12.2 2 1509 /244
-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- 두발,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/99.12.3 2 1510 /246
- “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” - 문화계, 청소년 연령 상향비판/99.12.10 2 1515 /256
- <스케치>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- 소년원 아이들의 연극/99.12.23 2 1524 /274

25. 여성

- 여성노동자 뭉친다 -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/99.7.3 2 1404 /6
-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-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/99.7.15 1 1412 /21
- 만화 사랑방 -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/99.7.16 1 1413 /23
- 늘어난 여성차별 -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, 성차별 호소/99.7.28 2 1421 /40
- 모성애를 들먹였다 -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/99.8.13 2 1433 /69
- 여성·아동 보호가 규제냐 - 규제개혁위 조치에 시민사회 반발/99.8.19 2 1437 /77
-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행선고 - 통신검열, 감시 강화 우려/99.8.25 1 1441 /84
- 북한난민 여성이 대다수 - 인신매매, 무임금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/99.8.31 1 1445 /92
- 8시간 일하고 싶다 - 여성노동자 4백22인의 현실과 희망/99.9.3 2 1448 /104
-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- 장시간 노동요구에 연령제한도/99.10.21 2 1479 /171
- “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” -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/99.11.4 2 1489 /194
-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- 장시간 노동, 4대보험 가입율 30% 이하/99.11.10 1 1493/201
-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생활 -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/99.11.12 1 1495 /205
- <인터뷰 자료>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/99.11.12 1 1495 /205

<성폭력>

-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- 경문대 학장,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/99.8.18 1 1436 /74
-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- 창원대 법대생, 교수 고소/99.9.3 2 1448 /103

26. 인종차별/이주노동자

- “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” - ‘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’ 발족/99.9.22 1 1461 /130
- ‘막가파’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- 만인산업대표, 폭행과 공갈협박/99.10.13 2 1473 /158
- 외국인노동자 “단결만이 살길”, 열악한 인권개선 위한 노조설립운동/99.11.2 1 1487 /189
-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-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/99.11.5 2 1490 /196
-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-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외노협 성명/99.12.22 2 1523/272

<이주 여성노동자>

-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생활 -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/99.11.12 1 1495 /205
- <인터뷰 자료>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/99.11.12 1 1495 /205

27. 장애인

- 휠체어추락, 지하철공사 유감 - 장애인 대책위,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/99.7.8 2 1407 /12
-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- 일본 오사카와 친선교류/99.7.24 2 1419 /36
-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- 휠체어 리프트 추락 장애인, 서울시 상대 소송/99.8.7 2 1429/60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부 상대 항고/99.8.25 1 1441 /84
- 정신지체장애인 출산이후 생활보장 -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/99.8.26 1 1442 /87
- “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” - 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/99.9.16 2 1457 /123
- “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” -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/99.9.18 2 1459 /127
-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읽기 -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발/99.9.29 2 1463 /135
- “지하철은 안전 사각지대” - 휠체어리프트 대책촉구 시위/99.10.8 2 1470 /152
- 노동부, 장애인 고용 외면 - 장애인고용 0% 부처에 면죄부/99.11.9 1 1492 /199
-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-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, 강제연행/99.11.16 1 1497 /210
- ‘일할 권리’ 요구 단식돌입 - 장애인들, 여의도에서 천막농성/99.11.18 1 1499 /214

28. 동성애자

- 편견을 바로 잡아라 -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자 비하 내용 수정요구/99.7.29 1 1422 /41
- <저무는 99년, 사건과 사람>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/99.12.16 2 1519 /264

29. 주거권/강제철거

- 무분별한 구속에 쫓겨 - 법원,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/99.7.1 2 1402 /2
-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- 남양주경찰서, 양해동씨 등 구속/99.7.27 2 1420 /38
- 계속되는 철거폭력, 최춘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/99.8.4 2 1426 /54
- 날뛰는 철거폭력, 수사 제자리 -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/99.8.5 2 1427 /56
-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-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/99.9.4 2 1449 /106
-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- 일터·보금자리 모두 잃을 듯/99.9.28 1 1462 /132
-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- 철거현장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/99.10.7 2 1469 /150
-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- 노점상·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/99.10.8 1 1470 /151
- 임대아파트법 개정 논쟁,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/99.10.22 2 1480 /173
- 폐렴·심장병에 멎든 철거촌 어린이 - 궁안마을 철거민, 모금운동/99.10.27 1 1483 /178

- <현장> 안양시청 앞 철거민노숙투쟁 - 반복되는 철거폭력/99.11.19 2 1500 /218
- 선전물 배포하던 철거민 연행/99.11.25 1 1504 /228
- 술취한 철거용역, 철거민 폭행 - 경찰, 실신한 철거민마저 조사 시도/99.11.26 1 1505/230
-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- 철거용역, 오물·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/99.12.1 1 1508/239
-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- 사제총포 배후조종 혐의 인정돼/99.12.16 2 1519 /264
- 봉천 3동, 철거폭력 극성 - 주민들, 온몸에 피멍, 전치 5주 부상/99.12.24 2 1525 /276

<방배동 강제철거>

- 공무원·용역 등쌀에 수난 - 서초구청의 노숙 노인들/99.10.1 2 1465 /142
- 노숙철거민 강제 수용 시비-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/99.10.14 1 1472 /161
- 서초구청,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거민 쫓아 내/99.10.20 2 1478 /169

<상암동 강제철거>

- 생존보다 월드컵이 우선 -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상암동 주민들/99.9.18 2 1459 /127
- 철거용역 다윈 다시 활개, 서울 봉천동·상암동 강제철거 시도/99.11.19 1 1500 /217

30. 평화/통일

- 평화를 위한 연대 -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/99.7.30 1 1423 /44
-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- 한반도 냉전청산을 위한 국제대회/99.8.14 2 1434 /71
- 핵폐기물 위협 고조 -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/99.9.1 1 1446 /97

<대인지뢰>

- 어디있나 살상무기 - 물난리로 유실된 대인지뢰 대책 촉구/99.8.10 1 1430 /61
- 끝내야 할 전쟁, 대인지뢰 - 대인지뢰 전시회 열려/99.12.11 2 1516 /258

<특집> 평화와 인권

- ④ 자결권과 미군/99.7.1 2 1402 /2
-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/99.7.3 2 1404 /6

31. 주한미군

-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- 파업조합원, 미 헌병대에 연행/99.7.31 1 1424 /45

<SOFA개정 국민행동>

- 미군 주권유린 용납 못해 -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/99.9.11 1 1454 /116

- 'SOFA개정 국민행동'결성 - 인권침해·미군범죄 근절 촉구/99.10.7 2 1469 /150
- "SOFA 특혜조항 삭제, 전면 개정" - 국민행동, 공청회 열어/99.11.4 2 1489 /194
- "고엽제 살포, SOFA 위반" -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앞 시위/99.12.15 2 1518/262

<조중필 씨 사건>

-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-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/99.9.15 2 1456 /121
- "내 아들을 살려내라" -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에 항의집회 열려/99.12.29 1 1527/280

<미군범죄>

-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- 주한미군,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/99.8.10 1 1430 /61
- 범죄수사의 성역 '주한미군' -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/99.9.9 1 1452 /112
- 노근리는 병산의 일각 - 제주·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/99.10.6 2 1468 /148

32. 해외인권

- 20세기 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- 앰네스티, 로마협약 비준 촉구/99.7.21 1 1416 /29
- 인도네시아,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/99.10.2 2 1466 /144

<동티모르>

-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- 위협받는 8월 투표/99.7.23 2 1418 /34
- 동티모르, 테러 기승 -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/99.8.21 1 1439 /80
- 동티모르,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- 결과는 7일 발표/99.8.31 2 1445 /93
- "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!" -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/99.9.9 2 1452 /113
-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- 유엔인권고등판무관, 특별회의 개최 촉구/99.9.11 2 1454/117
-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- 현지 방문단, 정부 개입 촉구/99.9.11 2 1454 /117
-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재제를 - 인권단체,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/99.9.15 1 1456 /120
- 국내 34개 시민단체, 동티모르 즉각파병 촉구/99.9.17 1 1458 /124
- <기고>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(이성훈 파스르마나 사무국장)/99.9.17 2 1458 /125
- 계속되는 학살 -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/99.9.18 1 1459 /126
- <시평>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(윤정숙 여성민우회)/99.9.21 2 1460 /129
- 유엔,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- "인도네시아 입김" 우려/99.10.1 2 1465 /142
- "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" -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난/99.10.13 2 1473/158
- 호세 라모스 호르타, "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"/99.10.28 2 1484 /181

<버마>

- 7·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-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/99.7.7 2 1406 /10

- <현장스케치>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- "위협과 투옥을 감수하겠다"/99.7.8 2 1407 /12
-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- 버마 군부, 3살 난 여아 투옥/99.8.5 1 1427 /55
- 한국 땅에서 진혼굿을 - 버마 8·8 민중항쟁 추모제 열려/99.8.6 1 1428 /57
-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- '9999운동' 버마 국내외서 전개/99.9.9 2 1452/113

33. 기타

-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/99.8.27 2 1443 /89
- 진보네트워크센터,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/99.8.27 2 1443 /89
- 개발시대 청산 요구 - NGO, 신 개발전략 요구/99.8.28 1 1444 /91
- <사고> 하루소식,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/99.9.7 3 1450 /109
-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-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/99.10.9 2 1471 /154
-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/99.10.27 1 1483 /178
- 인권하루소식 99년 중간사/99.12.30 1 1528 /284

<진보인사 입국 금지>

-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프 아귀통 입국금지/99.10.13 1 호외 /159
-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-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돼/99.10.14 1 1474 /160
-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- 프 대사관, 행자부에 질의/99.10.15 1 1475 /162
- 해외진보인사 또 입국금지, 미국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/99.11.13 1 1496 /208
- "스티브 젤저 직접 와라" - 법무부,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/99.11.17 1 1498 /212
- "외국인 블랙리스트 웬말" 젤저 씨 동료들, 항의시위 계획/99.11.19 1 1500 /217

<한미투자협정>

- 한미투자협정,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(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/99.7.2. 2. 1403 /4
-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/99.7.2. 2 1403 /4

<뉴라운드>

-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-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/99.9.16 1 1457 /122
- <현장스케치>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/99.10.14 2 1474 /161
-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! - 시민단체, 뉴라운드 협상 반대 천명/99.11.25 1 1504 /228
- <자료> WTO-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/99.11.25 1 1504 /228
- 뉴라운드 반대 행동 돌입 - 항의시위·설명회 등 열려/99.12.1 2 1508 /240
-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- 민주노총 등 WTO뉴라운드 반대시위 지지/99.12.3 1 1510 /245

<베트남 학살>

- 베트남에도 '노근리'가 있다 - 한국군, 임산부·어린이 무차별 사살/99.12.11 2 1516/258
-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- 엽서보내기·거리캠페인 전개/99.12.17 1 1520 /265

<김형찬>

-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요연 - 김형찬 씨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/99.10.6 1 1468/147
- 김형찬 씨 행방불명 3일째 -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 4일 구금/99.10.7 1 1469 /149
- <만화사랑방> 국정원의 김형찬 씨 불법구금 의혹/99.10.8 1 1470 /151
- 김형찬씨, 지난 10일 돌아와 - 심경정리 위한 잠적/99.10.16 2 1476 /165

34. 민간단체

<민주노총>

-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도 -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/99.8.19 1 1437 /76
-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- 민주노총, "납득할 수 없는 일"/99.10.21 1 1479 /170
- 검찰, 이유도 고지 않고 민주노총 관계자 참고인 수사/99.10.28 2 1484 /181
- 민주노총,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 - 국회 앞 농성장 침탈, 분노 들끓어/99.12.8 1 1513/251
- "김대중은 퇴진하라" - 민주노총, 무기한 농성 돌입/99.12.9 1 1514 /253

<민가협>

- <현장스케치> 민가협, 288번 제 목요집회/99.7.9 2. 1408 /14
-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- 민가협, 국보법 만화전/99.7.22 1 1417 /31
-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- 민가협, 양심수 석방 캠페인/99.8.5 1 1427 /55
- <현장스케치> '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-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/99.8.6 2 1428 /58
- <현장스케치> 한여름 밤의 인권축제 - 우드스탁 개최/99.8.7 2 1429 /60
- <현장스케치> 사면후 처음 열린 '분노의 목요집회'/99.8.20 2 1438 /79
-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-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/99.10.8 2 1470 /152

35. 인권서평/기고

-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(이경주 경북대 교수)/99.8.11 2 1431 /64
- 우리 할머니 산전택 (공선옥 소설가)/99.9.7 3 1450 /109
-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(이제훈 한겨레 기자)/99.9.14 2 1455 /119
-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/99.9.21 2 1460/129
-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/99.9.28 2 1462 /133
-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(강내희 중앙대 교수)/99.10.5 2 1467 /146

· 작은 것들 죽이기 (공선옥 소설가)/99.10.12 2 1472	/156
·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(이제훈 한겨레 기자)/99.10.19 2 1477	/167
· '아줌마 부대'가 만드는 '조용한 혁명' 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/99.10.27 2 1483 /179	
·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가지 단상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/99.11.2 2 1487	/190
· 사실은 사실대로 (강내희 중앙대 교수)/99.11.9 2 1492	/200
·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(공선옥 소설가)/99.11.16 2 1497	/211
· 386세대는 없다 (이제훈 한겨레기자)/99.11.23 2 1502	/223
·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 (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)/99.11.30 3 1507	/235
·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(서준식,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/99.12.7 2 1512	/250
· 소유권 대 향유권 (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)/99.12.14 2 1517	/260
· 죽음에 대한 예우 (공선옥 소설가)/99.12.21 2 1522	/270
· 밀레니엄, 그리고 여의도 '농성 천막촌' (이제훈 한겨레 기자)/99.12.28 2 1526	/279

36. 기고/투고

· 농민의 미래, 협동조합 개혁 (소회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)/99.7.14 2 1411	/20
·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(조관익 서울시립대 학생)/99.7.29 2 1422	/42
·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(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)/99.8.12 2 1432	/66
·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(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)/99.9.17 2 1458	/125
·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(김건환 건국대 교수)/99.9.22 2 1461	/131
· 또하나의 전쟁터 : 버마 · 태국 (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)/99.11.17 1498	/213
·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(박호경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 대표)/99.11.24 2 1503 /226	

37. 인권간행물

· <책> 『아름다운 저항』 -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/99.7.21 2 1416	/30
· <비디오> 또 하나의 세상(행당동 사람들 2)/99.8.4 1 1426	/53
· <신문>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『활보』 (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)/99.9.8 2 1451/111	
· <책> 『국제인권법』 (박찬운 변호사)/99.9.21 1 1460	/128
· <책> 『인권수첩』 한상범 동국대 교수/99.10.6 1 1468	/147
· <책> 『제2의 국가보안법, 보안관찰관련 자료집(1)』/99.10.20 1 1478	/168
· <비디오>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,2(제작 올림피아프로덕션)/99.10.28 1 1484	/180
· <논문> 『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』 (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강사 정영선)/99.12.15 2 1518	/262

38. 만화사랑방(만평)

·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예바다/99.7.2. 1 1403	/3
· 준법서약서 강요와 김 대통령 "자유메달" 수상/99.7.9 1 1408	/13
·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약화/99.7.16 1 1413	/23
· 신창원과 대통령의 꿈/99.7.23 1 1418	/33
· 잘못된 '교과서' 생명을 앗아 갑니다/99.7.30 1 1423	/43
· 김현철 사면을 위한 양심수 사면/99.8.6 1 1428	/57
· 민생개혁법안 처리없이 끝난 국회/99.8.13 2 1433	/69
· 예바다 투쟁 1천일/99.8.20 1 1438	/78
· 정신지체자 강제 불임수술/99.8.27 1 1443	/88
· 나쁜 버릇 못 고친 국정원/99.9.3 1 1448	/103
· 국보법 폐지 운동 각계 확산/99.9.10 2 1453	/115
· 불법도청, 사생활 정보 유출/99.9.17 1 1458	/124
· 시위대에 돌 던진 경찰/99.10.1 2 1465	/142
· 국정원의 김형찬 씨 불법구금 의혹/99.10.8 1 1470	/151
· NGO대회에서 쫓겨난 NGO 활동가/99.10.15 1 1475	/162
· 보안관찰, 이젠 그만해라/99.10.22 2 1480	/173
·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속인 법무부/99.10.29 2 1485	/183
· 국보법 존속주장 한나라당 63적/99.11.5 2 1490	/196
· 정형근 /99.11.12 2 1495	/206
· 진보적 외국인 입국금지/99.11.19 1 1500	/217
· 국보법 제정 51주년/99.12.3 1 1510	/245
· 대학언론 탄압/99.12.10 2 1515	/256
· 민중대회 폭력시위로 보도한 언론/99.12.17 1 1520	/265
· 인권법 제정 연기/99.12.24 1 1525	/275

39. 주간인권흐름

· 6월 28일-7월 5일/99.7.7 2 1406	/10
· 7월 6일-7월 12일/99.7.13 2 1410	/18
· 7월 12일-7월 19일/99.7.20 2 1415	/28
· 7월 20일-7월 26일/99.7.27 2 1420	/38
· 7월 27일-8월 2일/99.8.1 2 1425	/52
· 8월 3일-8월 9일/99.8.10 2 1430	/62
· 8월 10일-8월 16일/99.8.17 2 1435	/73
· 8월 17일-8월 23일/99.8.24 2 1440	/83
· 8월 23일-8월 30일/99.8.31 2 1445	/93

· 8월 31일-9월 6일/99.9.7 2 1450	/108
· 9월 7일-9월 13일/99.9.14 2 1455	/119
· 9월 14일-9월 20일/99.9.21 2 1460	/129
· 9월 21일-10월 3일/99.10.5 2 1467	/146
· 10월 4일-10월 10일/99.10.12 2 1472	/156
· 10월 11일-10월 17일/99.10.19 2 1477	/167
· 10월 18일-10월 24일/99.10.26 2 1482	/177
· 10월 25일-10월 31일/99.11.2 2 1487	/190
· 11월 1일-11월 7일/99.11.9 2 1492	/200
· 11월 8일-11월 14일/99.11.16 2 1497	/211
· 11월 15일-11월 21일/99.11.23 2 1502	/223
· 11월 22일-11월 28일/99.11.30 3 1507	/236
· 11월 30일-12월 5일/99.12.7 2 1512	/250
· 12월 6일-12월 13일/99.12.14 2 1517	/260
· 12월 11일-12월 20일/99.12.21 2 1522	/270
· 12월 21일-12월 28일/99.12.28 2 1526	/279

40. 월 총목차

· 99년 7월 총목차(1402~1424호)/99.7.31 2 1424	/46
· 99년 8월 총목차(1425~1445호)/99.9.1 3 1445	/99
· 99년 9월 총목차 (1446~1464호)/99.9.30 2 1464	/137
· 99년 10월 총목차(1465~1486호)/99.10.30 2 1486	/185
· 99년 11월 총목차(1487~1507호)/99.12.1 3 1508	/241
· 99년 12월 총목차(1508~1528호)/99.12.30 3 1528	/286

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

펴낸날 ▶ 2000년 2월

펴낸이 ▶ 서준식

펴낸곳 ▶ 인권운동사랑방

주소: 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-29

대표전화: 02-741-5363 · 팩스: 02-741-5364

통신 ID: Rights(천리안, 하이텔) 인권사랑(나우누리)

대표 E-mail: humanrights@sarangbang.or.kr

인터넷 홈페이지: <http://www.sarangbang.or.kr>

값 1만원